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중 칭찬 화행 대조 연구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SONG ZHENHUA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중 칭찬 화행 대조 연구

지도교수 김 희 섭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SONG ZHENHUA

SONG ZHENHUA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23일



위원장 문학박사 채영희 (인)

위 장 문학박사 권성미 (인)

위 장 언어학박사 김희섭 (인)

목 차

* Abstract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5
가. 한국 칭찬 화행 선행 연구	5
나. 중국 칭찬 화행 선행 연구	7
다. 한·중 칭찬 화행 대조 연구 현황	8
II. 이론적 배경	11
1. 칭찬 화행의 개념	11
2. 칭찬 응답의 개념	12
3. 칭찬 화행의 기능 및 특성	14
4. 칭찬 화행의 유형	16
5. 칭찬 응답의 유형	16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 대상 소개	20
2. 연구 자료 수집	21
3. 연구 이유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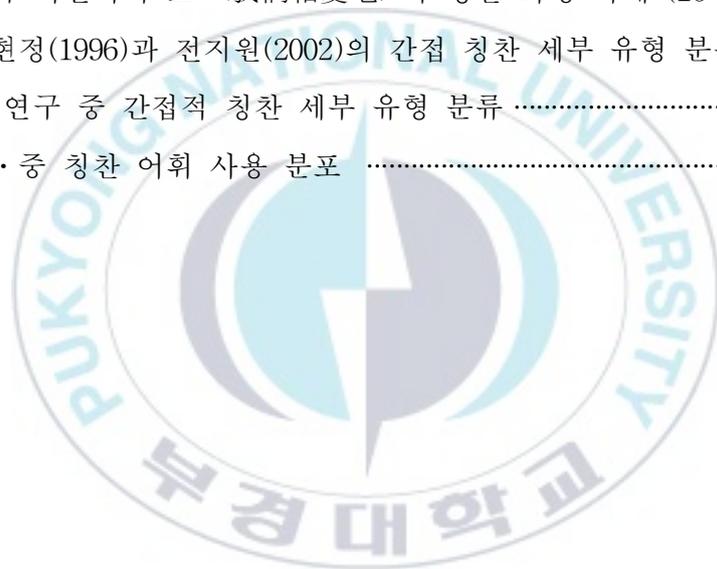
IV. 한·중 칭찬 화행의 대조 분석	27
1. 한·중 칭찬 화행의 유형의 대조 분석	27
가. 직접적 칭찬	27
나. 간접적 칭찬	30
다. 언급 있음	36
2. 한·중 칭찬 화행 문법 구조 대조 분석	37
가. 중국어 칭찬 화행의 대표적인 문법 구조	37
나. 한국어 칭찬 화행의 대표적인 문법 구조	38
3. 한·중 칭찬 화행 어휘 대조 분석	39
가. 중국어 칭찬 화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40
나. 한국어 칭찬 화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41
4. 한·중 칭찬 화행 화제 및 칭찬 대상 대조 분석	42
가. 청자에 대한 칭찬 화제	43
나. 화자에 대한 칭찬 화제	47
다. 제 3 자에 대한 칭찬 화제	48
5. 한·중 칭찬 화행 기능 대조 분석	49
가. 교류 기능	50
나. 언어 기능	57
6. 한·중 칭찬 응답 유형 비교	60
가. 칭찬 응답의 분류	60
나. 중립 유형	62
다. 거절 유형	62
7. 친밀도에 따른 칭찬 응답에 대한 대조 연구	64
가. 프로그램 초반	64
나. 프로그램 중반	64

다. 시즌 끝나기 전	65
V. 한·중 문화적인 차원에서 칭찬 화행 차이 원인 분석 ..	66
1. 문화 및 언어의 관계	66
2. 문화적인 차원에서 칭찬 화행 분석	67
VI. 결 론	70
참고문헌	75
국문초록	78



<표 차례>

<표1> 칭찬 화행의 교류기능에 관련 세부 분류	14
<표2> 이하나(2005)에서 사용된 응답의 분류 유형	18
<표3> 한국 리얼리티 쇼 <우리 결혼 했어요>의 칭찬 화행 사례 (21회 분량)	23
<표4> 중국 리얼리티 쇼 <我們相愛吧>의 칭찬 화행 사례 (26회 분량) ·	24
<표5> 김현정(1996)과 전지원(2002)의 간접 칭찬 세부 유형 분류	32
<표6> 본 연구 중 간접적 칭찬 세부 유형 분류	33
<표7> 한·중 칭찬 어휘 사용 분포	41



Comparative Study of compliments between Korean and Chinese

SONG ZHENHU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comparative study is focus on daily compliments, and the cases are from the reality TV shows <우리 결혼 했어요>and <let's fall in love>, which are made in the same pattern, one is from Korea, and the other is from China, both are very popular in recent two years. This comparative study mainly aims to support the cultur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language education in Korea-China international families, by analys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bout the compliments in the two reality TV shows.

Chapter One tells the necessities and importances of this essay by discussing the normal communicating barriers both in Korea-China international marriage and culture exchange .Chapter One also summarize other scholars' studies in this field.

Chapter Two, starting from the related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pliments,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the response, summarizes the fuctions and features, reviews other scholars achievements, analyzes the types of compliments and responses in detail.

Chapter Three introduces the related content about the 21st episode of <우리 결혼 했어요> from Korea and the 26th episode from <let's fall in love>from China, summarize the locations of the collected compliment cases,

states why to choose this object and topic.

Chapter Three comparatively analyses 6 aspects, which are the compliment types, compliment grammar structures, compliment vocabulary, compliment subjects and objects, compliment functions, according to the collected cases from the reality TV shows from Korea and China.

Chapter Five further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from culture background.

Chapter Six summarizes all the results of this essay and make a final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proportion of direct compliment is more than 60% both in Korean and Chinese. The syntactic structure is relatively monotonous in Korean, in contrast, Chinese compliments are more complex and diverse. Chinese use more second person pronouns. The proportion of adjectives is more than 90% for both Chinese compliments and Korean compliments. In this study, Chinese used verbs to praise others, but Korean did not. For praise subjects and objects, the two countries both mainly praise the person you talked with, Chinese praise the person's possessions more, oppositely Korean praise the person's capabilities and skills more. For the general praise functions, Korean and Chinese are the same mostly. For the responses, Chinese use more modest expressions, while Korean use more gratitude express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other studies is that all the cases are from the latest reality TV shows, the information is new and authentic. On the contrary,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which need further supplem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의 글로벌화는 이미 일종의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에 따라 국경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교류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 교류에서 각 국가 및 지역의 언어문화의 차이는 서로 다른 쌍방의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오해와 충돌마저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의 언어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중 양국은 인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예로부터 유교 사상 등 문화적 요소는 물론이고 경제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 때 사람들은 언어라는 교류의 매체를 통해 상호 소통해왔다. 따라서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국가의 언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역사나 지리적 요건으로 양국의 문화에 유사한 측면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각국의 독자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그 차이 역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은 비록 한족이 다수를 차지한다고는 하나 모두 56개의 민족이 있어 각 민족의 문화·지역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반도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면에서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빠르게 글로벌화 되어

국제결혼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인구 통계청의 인구 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1990년대 1.2%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이미 13.6%에 도달하였다. 이후 몇 년 동안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현재 국제결혼의 비율은 여전히 7%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국제결혼 총 20,591건 중 에서 한·중 국제결혼이 5661건으로 전체의 27.5% 차지하고 있다. 그 중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의 결혼 인구는 전체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자의 결혼 인구 비율에서 2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여성과 중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 역시 전체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 비율에서 25.4% 차지하고 있다.¹⁾

이러한 국제결혼이라는 거시적 환경으로 인해 조성된 사회문제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 내의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두 사람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에 의한 가치관의 차이나 생활 패턴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정 형성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국 문화 및 언어 교류에 대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수출로 인한 한류의 유행은 한국에 대해 매우 큰 홍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각국의 젊은 세대에게 크게 사랑받고 있다. 한류의 대표적인 상품인 대형 콘서트,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으며 이웃 나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최초로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근에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능

1) 2016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에서 인용.

프로그램들까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비록 자막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문화 및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동시에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시청자들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재미를 느끼지만 동시에 일정한 한계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중국 시청자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해 중국의 방송국들은 2013년부터 중국 자체 제작진과 한국 방송국 제작진의 협력을 통해 한국판 예능 프로그램의 판권을 구입하여 중국판 예능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현재는 75%에 가까운 한국 방송 포맷이 이미 중국 각 방송국에 수입되어 자국화를 이루었다. 특히 일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쇼(Reality Show) 프로그램은 큰 호평을 받고 있다.²⁾ 이러한 종류의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은 기본 프레임이 설정되어 있을 뿐 출연자들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한 세세한 대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실제 상황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그 내용이 더욱 진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진실하고 생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 언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중의 문화적 배경을 적절히 이해하고 언어적인 부분에서 응용할 소지가 있는 연구 소재라고 간주한다.

칭찬과 대응한 영어로는 ‘compliment’이 있으며, 중국어로는 ‘稱贊’라고 한다.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칭찬을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한다. 또는 그런 말 찬칭, 칭미, 칭양, 칭예’라고 설명하였다.³⁾ 중국어 어휘사전(新華字典)은 칭찬에 대해 ‘稱贊是指人們對某件事的贊揚, 即對某件事的認同的基礎上覺得它做得好/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높게 평가함, 즉 어떤 일에 대해 인증하는 기반으로 잘 한다고 생각하다는 것’이라고

2) 중국 소호뉴스: 韓國熒屏熱播綜藝節目72.45%都已引進到國內 인용.

3) 표준 국어사전에서 인용.

설명하였다.⁴⁾ 칭찬은 일종의 언어 소통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빈도 역시 높다. 주로 서로 인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 등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이외에도 대화의 시작이나 이야기를 끝맺는 역할도 하며 대화 과정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작용도 한다. 이처럼 칭찬과 그 응답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교류 방식으로서 작용하여 소통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 이는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즉, 자연스러운 칭찬과 그 응답은 인간의 소통에 윤희유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칭찬과 그 응답은 일반적으로 인간 교류의 보편화된 관용어로서 인간 사이의 교류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작용을 수행한다.

한·중 양국의 학자들은 칭찬 화행⁵⁾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예능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자료로 삼아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본 연구는 같은 포맷으로 한·중 양국에서 만들어진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와 <我們相愛吧>에 나타난 칭찬화행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프로그램 속에 나타난 칭찬과 응답 관련 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양국의 칭찬 화행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중 문화 교류와 현실에서의 한·중 국제결혼 가정의 언어 교육 측면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중국어 어휘사전 新華字典에서 인용.

5) 칭찬 화행은 '칭찬'과 '칭찬 응답'의 인접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선행 연구

칭찬 화행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에 걸쳐 미국의 응용언어학자 Pomerantz(1978)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화용론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및 중국의 학자들도 칭찬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연구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칭찬 화행의 연구 현황과 중국어 칭찬 화행 연구 현황, 한·중 칭찬 화행 비교 연구 현황 등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 한국 칭찬 화행 선행 연구

한국어 칭찬 화행 연구는 대부분 설문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칭찬 주제와 사회 변인, 칭찬 대상 측면에서 한국어 칭찬 화행 응답 유형을 연구한 학자로는 이원표(1996), 김형민(2003) 등이 있다. 이원표(1996)는 선생님, 친구, 후배 등 3개의 사회관계를 지닌 대학생들 대상으로 외모, 복장, 소유물, 성취 등 다양한 칭찬 주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각기 다른 칭찬 주제와 대상에 대한 칭찬 응답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김형민(2003)은 한국 대학생들의 칭찬 화행 응답 모델을 조사한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타인의 칭찬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칭찬 화행과 교재를 비교 연구한 학자로는 전지원(2005)과 박경옥(2005)이 있다. 전지원(2005)은 드라마 316편과 대학 기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 3종 9권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모

국어로 하는 한국인의 칭찬 응답 유형에 대한 사용 빈도를 연구하여 해당 연구의 성과를 교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칭찬 응답 유형은 Pomerantz (1978)과 Holmes(1988)을 기초로 무응답을 추가했으며 사회 변인 측면에서 화자의 성별, 나이, 친밀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은 칭찬에 대해 수용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주로 취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교수 작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에게 있어 나이가 가장 영향력이 크며 이로 인해 청자에 따라 칭찬 반응을 다르게 선택한다고 하였다. 전지원(2005)은 칭찬 응답에 한정된 연구를 진행한 반면 박경옥(2005)은 칭찬 응답 뿐만 아니라 칭찬 화행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박경옥(2005)의 연구는 나이, 친밀도, 지위 등의 독립변수를 세분화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칭찬 화행의 유형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경옥(2005)은 한국어 회화 교재와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칭찬 화행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재가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칭찬 화행 양식에 비해 더욱 한국인의 공손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한국어 교재가 한국인의 정신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박애양(2009)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칭찬 화행을 학습할 때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할 한국어 칭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중 칭찬 화행 연구에서 새로운 시도인 문장 구조 분석과 표현 문형 추출, 유형 분류 및 의미 자질 등을 대조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정미(2009)는 한국어 칭찬 화행의 유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정미(2009)는 한국어 칭찬 화행의 유형과 빈도 측정을 위해 드라마 대본을 바탕으로 한국어 칭찬 화행의 유형을 실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어의 칭찬 응답 유형에서 수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특히 수용 유형에서도 감사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거절 유형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사양이며 보류 유형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추궁형 이라 하였다.

나. 중국 칭찬 화행 선행 연구

중국에서 진행된 칭찬 화행에 관한 연구는 크게 중국 칭찬 화행 유형의 연구와 칭찬 주제, 사회 변인 및 칭찬 응답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칭찬 응답 유형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悅娥와 馮江鴻(2000) 등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전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대학생들이 타인의 칭찬에 대해 대체로 감사와 수용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칭찬 주제와 사회 변인 측면에서 평가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權立宏(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남자 대학생과 여대생을 구분하여 칭찬에 대한 응답에 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여자 대학생들은 대답할 때 상대적으로 예의가 바르지만 남자 대학생들은 이와 반대로 거절 또는 답변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張亭亭(2007)는 성별, 칭찬 주제, 사회적 지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조사하였는데 칭찬 주제의 경우 외모를 칭찬할 때에는 남자 대부분이 거부를 선택한 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수용을 선택하였다. 반면, 칭찬 주제가 인품과 성격과 관련될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칭찬을 수용하였으며 지위가 같을 경우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은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나 낮을 경우 여성의 소극적 수용 비율이 남성의 소극적 수용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曹慶慧(2011) 역시 칭찬에 대한 응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 응답자를 나이를 기준으로 18-30세, 35-50세, 5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더해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로 분류하였는데 조사 결과 남녀 모두 타인의 칭찬을 완곡하게 수용하는 것을 선호하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칭찬에 대한 수용 또는 거절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劉梅(2011)에서는 중국어의 칭찬 화행 유형을 전이형, 부인형, 묵인형, 수용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비율이 40%, 26.1%, 23.1%, 10.8%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위, 사회 심리적 거리, 성별, 연령별로 칭찬 화행 응답 유형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칭찬을 받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칭찬을 수용하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칭찬을 받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경우에는 전이형과 부인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 심리적 거리 측면에서는 여자는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남자는 거부, 침묵, 이전 등의 유형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동안의 칭찬 화행 연구는 대부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연구 대상 또한 대부분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주제, 사회 변인, 대상 등의 독립변수에서 출발하여 해당 독립변수들이 칭찬 화행 및 응답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 한·중 칭찬 화행 대조 연구 현황

칭찬 화행의 비교 연구와 관련해서 아래 두 편의 논문을 살펴볼 것이다.

정다운(2002)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의, 소유물, 성취, 행동 등 칭찬 주제와 친소 관계, 지위의 고저 등 사회적 변이에 대한 12가지 상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인과 중국인의 칭찬화행 응답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들은 중국인에 비해 농담과 해석에 뛰어난 반면 중국인들은 추구와 의지 표현을 더 중시한다고 하였다.

뮈惠貞(2009)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그리고 한국 유학생 등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대학생들은 칭찬을 수용하는 경향이 많고 한국 대학생들은 서로 화합하는 것을 선호하며 한국 유학생들은 교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유학생 집단은 한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과 달리 공경을 선호한다는 대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두 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한·중 칭찬 화행 비교 연구들은 모두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다운(2002)의 연구는 칭찬 주제와 사회 변인을 고려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를 통해 칭찬 화행의 응답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뮈惠貞(2009)는 독립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한·중 대학생 및 한국 유학생의 일반적인 칭찬 화행 유형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가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칭찬 주제, 칭찬 대상, 사회 변인 등 독립변수를 위주로 연구하였다. 칭찬 화행 유형의 연구는 모두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칭찬 화행 유형과 비율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또한, 칭찬 화행 응답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칭찬 화행 응답 유형과 비율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아래의 세 가지 이유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방식을 채택하는 대신 일상생활과 가까운 리얼리티 쇼를 연구 소재로 선택하여 칭찬 화행 및 응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은 ‘리얼리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커플들이 겪을 만한 상황을 출연자에게 제시하면 출연자는 거기에 실제와 같이 반응한다. 따라서 그 상황은 비록 연기라 하더라도 출연자들의 언행은 실제 그들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방영된 <우리 결혼했어요>와 <我們相愛吧>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과 연애라는 가상의 전제 조건을 소재로 한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대별, 결혼에 대한 성향 별 다양한 커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다수의 출연진들이 출연한다. 또한 매 시즌마다 구성원들이 바뀐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비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포맷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고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의 오리지널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 즉,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과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인의 칭찬 화행 응답의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칭찬 화행과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칭찬 화행의 개념 및 이에 대응하는 칭찬 응답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며 그 다음으로 칭찬 화행의 유형, 칭찬 화행 기능 및 특성을 알아보고 칭찬 응답의 유형까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칭찬 화행의 개념

각국의 사회적 문화에 따라 칭찬 화행에 관한 개념도 달라진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칭찬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서양 학자의 연구를 살펴보면 Farson(1963)은 칭찬을 대상물, 사람, 행위 및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보충적인 정보를 거의 내포하지 않는 말 이라고 정의하였다.⁶⁾ Holmes(1988)는 칭찬 화행에 대해 ‘화자가 타인에게 말하는 것으로 특히,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⁷⁾

한국 학자 연구를 살펴보면 백경숙(1998)은 ‘칭찬’이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호감의 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칭찬 화행이 대화자들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현민(2003)에서는 ‘칭찬’은 화자가 칭자가 속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칭자 혹은 제 3자와 관련

6) 김현민 2003: 260 재인용; Farson(1963:61-66).

7) 박애양(2009)에서 재인용.

된 행위, 대상, 성취, 소유물, 취향이나 질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행해지는 언향적 화행이라고 정의하였다.

중국학자들의 칭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郭愛先(1996)에서는 칭찬을 상대방의 인품, 능력, 복장, 외모, 소유물 등 높게 평가하는 말로 정의하였다. 高志怀·李娟(2004)은 칭찬은 좋은 감정을 전하는 것으로 칭찬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찬미, 감탄, 등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정의 내렸다.

앞에 선행연구 이외에도 언어 교육용 도구인 표준 국어대사전은 칭찬에 대해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 칭찬, 칭미, 칭양, 칭예’라고 설명하였다. 중국 현대한어사전은 칭찬에 대해 ‘称赞是指人們對某件事的贊揚，即對某件事的認同的基礎上覺得它做得好/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높게 평가함, 즉 어떤 일에 대해 인증하는 기반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칭찬 화행에 대한 정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화자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청자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외모, 소유물, 능력 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칭찬 내용은 대부분 화자와 청자의 가치관 중에서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칭찬이 선행되면 그 후에 칭찬 응답이 대부분 따라 온다.

2. 칭찬 응답의 개념

칭찬 응답은 보통 화자가 칭찬을 하게 되고 그 칭찬을 들은 청자가 칭찬 응답의 화자가 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칭찬 응답⁸⁾에 대해

8) 칭찬 응답은 영어로 ‘compliment respon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称赞应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칭찬 응답’에 대한 용어가 ‘칭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정의를 내렸는지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Herbert(1989)는 칭찬 화행과 칭찬 응답이 인접쌍으로 또는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긴 발화에서도 쉽게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⁹⁾ 이와 비슷하게 Nelson, Al-batal & Echols(1996)에서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칭찬을 듣고 예의로 응답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¹⁰⁾

정다운(2002)에서는 칭찬 응답은 ‘칭자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 칭자가 언어 또는 비언어 양식으로 칭찬 화행에 대응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전지원(2005)은 칭찬 응답이란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 내용과 주제에 관련된 말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칭찬 화행에 대한 칭찬과 응답은 이러한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진정미(2009)에서는 칭찬 화행의 대답이 칭찬 응답으로 이전 화제에 대해 대답하고 또한 새로운 화제의 출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중국학자 張婷婷(2007)은 논문에서 칭찬 응답이 ‘칭찬 화행에 대해 응답자가 언어 또는 신체로 응답하는 일종의 언어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학자들의 연구 결론을 종합하면 칭찬 응답은 칭찬을 받은 사람의 칭찬 언어 또는 비언어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칭찬 응답의 화자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둘째, 칭찬의 대답은 언어와 비언어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셋째, 칭찬 응답은 주제와 관련되고 새로운 화제의 출현을 촉진하며 칭찬-응답 순으로 나타난다.

찬 응답’, ‘칭찬 반응’, ‘칭찬 응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칭찬 응답’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9) 송운경, 2004 재인용

10) 김효정, 2011 재인용

3. 칭찬 화행의 기능 및 특성

칭찬 화행은 일상생활에 흔히 보이는 언어 정보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화자가 대인 관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청자의 좋은 점을 표현하거나 친근감과 호의를 나타내 효율적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Olshtain & Cohen(1991)은 칭찬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기술하는 ‘호의적인 비평’ 기능과 상대를 평가하는 ‘칭찬’ 기능을 둘 다 겸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화자는 칭찬 화행을 통해 청자에 대한 관심과 청자에 대한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였다. 高志懷·李娟(2004)은 칭찬의 기능을 ‘사회 교류자 간의 거리감을 줄이고 마음을 연결하며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지원(2006)의 정리에 따르면 한국어의 칭찬 화행에서 칭찬은 화자가 칭찬 대상이나 대상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나 호감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칭찬 행위를 통해 칭찬 대상의 좋은 점을 표현하거나 친근감과 호의를 보임으로써 대인 관계를 강화하는 유대 기능을 겸한다.¹¹⁾

칭찬 화행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교류 기능과 언어 기능의 2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교류 기능은 칭찬 대상에 따라 아래의 <표 1>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다. 칭찬 화행의 또 다른 기능인 언어 기능은 주로 화제 제기, 화제 잇기, 화제 전환 및 화제 종결 등의 4가지로 나타난다.

11) 전영호(2016)에서 재인용.

<표1> 칭찬 화행의 교류기능에 관련 세부 분류

칭찬 대상	기능
자신 칭찬	자신 인정
	자신 추천
상대방 칭찬	찬사
	응원과 격려
	위로 기능
	아침 및 아부
	겸손 표현
	인사말
	만족과 감사 표시
	풍자
제 3 자 칭찬	추천
	칭자를 환기시킴

Manes & Wolfson(1981)에서는 칭찬 화행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¹²⁾

첫째, 칭찬 화행은 모국어 습득 시에 명시적으로 교육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감사나 인사 화행과 다르다.

둘째, 칭찬 화행은 다른 화행에 비해 다수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화 시 다른 기능들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셋째, 칭찬 화행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지만 특별히 언급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넷째, 칭찬 화행은 주변적 언급과 함께 쓰인다. 이 주변적 언급이라는 것은 칭찬의 앞이나 뒤에 위치하면서 정형화된 칭찬 표현과는 달리 그 어휘적 항목이나 구문이 매우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2) 송영미(2003)에서 재인용

4. 칭찬 화행의 유형

Manes와 Wolfson(1981)은 칭찬 화행 유형을 직접적인 칭찬과 주변언급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직접적인 칭찬은 칭찬의 중심 내용에 대해 직접적 표현을 하는 것이다. 반면 주변언급은 직접적 칭찬 표현 앞이나 뒤 또는 직접적인 칭찬 표현과 떨어져 위치하며 추가적인 언급을 통해 칭찬 표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현정(1996)은 Manes와 Wolfson(1981)의 분류를 참조하여 주변언급에 대해 관련 내용이 칭찬과 함께 나타나 칭찬 표현이 없어도 단독으로 칭찬 화행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직접칭찬에 대응하는 간접칭찬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이를 여섯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전지원(2002)은 김현정(1996)의 간접칭찬 분류 유형에 속하는 알아채기, 정보 묻기, 개인적인 의견, 농담하기, 요청·제시의 다섯 가지 유형 이외에도 비언어적 행위, 감탄, 감사하기, 축하하기, 격려·부탁 등 다섯 가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楊迪(2007)는 전지원(2002)과 김현정(1996) 분류 유형을 참조하여 칭찬 화행의 유형을 크게 직접적 칭찬, 간접적 칭찬, 언급 있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중 간접적 칭찬 유형은 알아채기, 정보 묻기, 개인적인 의견, 감탄, 농담하기, 감사하기, 격려 부탁, 요청·제시의 8 가지 유형 이외에 비유 유형을 추가하여 총 아홉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5. 칭찬 응답의 유형

정다운(2002)은 Pomerantz(1978)과 Holmes(1988)를 참조해 ‘수용, 중립, 거절’로 분류하고 여기에 ‘무응답’을 추가하였다.

수용: 칭찬 받는 사람이 남의 칭찬에 감사를 표하고 동의하거나 기쁘다.

중립: 칭찬 받는 사람이 칭찬을 수용하지 않지만 또한 거절하지도 않는다.

거절: 칭찬 받는 사람들이 칭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칭찬을 낮추는 등 칭찬을 거절한다.

무응답: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전정미(2009)는 칭찬 응답을 수용, 거절, 보류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수용: 타인의 칭찬에 동의한다.

거절: 타인의 칭찬에 대해 거절 또는 부인한다.

보류: 수용 또는 거절의 두 가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하나(2005)는 칭찬의 중심 화제로 외모, 소유물, 성격, 능력 등 네 가지 요소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Herber(1990)의 분류를 기반으로 실제 연구 결과에 따라 응답 유형을 다양하게 보완 수정하였다.

<표2> 이하나(2005)에서 사용된 응답의 분류 유형

적극적 수용	감사
	수용
	칭찬 강화
	일치
소극적 수용	간략한 설명
	자찬회
	칭찬 되돌리기
	다짐 약속
	권유
동의하지 않음	소망
	사건 경시
	질문/놀라움
	부동의
	제한
	화제 전환
	무응답

張婷婷(2007)은 칭찬 응답을 세부적으로 언어 응답 형식, 몸짓 언어 응답 방식, 응답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신체 언어 형식: 미소, 허리를 구부림, 큰 웃음 등의 방식이 이에 해당하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여 칭찬화행에 대해 대답한다.

무응답: 언어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고 또한 신체 언어를 통한 응답 방식도 사용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칭찬 화행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의 및 동의하지 않음’, ‘수용 및 거절’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나(2005)의 칭찬 화행 유형 분류에서는 동의 유형을 적극적 수용과 소극적 수용으로 분류하였다. 칭찬에 대해 거절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칭찬 응답에 대해 정다운(2002)은 ‘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반해 전정미(2009)에서는 ‘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두 학자들은 이 유형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실은 이 둘은 동일한 유형이다. 張婷婷(2007)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응답 형식 외에 몸짓 언어 응답 방식 및 응답 없음을 추가하여 칭찬 응답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은 프로그램에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를 분석할 때에 칭찬 응답의 유형을 크게 수용, 중립, 거절로 구분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소개

한국의 리얼리티 쇼 <우리 결혼 했어요>는 한국의 민영 방송 중 하나인 MBC 방송국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연예인의 ‘가상 결혼’을 주제로 한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는 배우, 가수, MC, 개그맨 등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인기 스타들이다. 가상 부부 프로그램은 마치 출연자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은 심리를 자극하여 매스컴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출연자 중에는 한류 팬클럽 회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 국가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이 가상의 부부로 출연하여 결혼 생활의 면면을 드러낸다. 또한 각 회 차마다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미션’을 제시하여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신혼생활의 달콤한 모습을 그려 내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온 두 사람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소소한 갈등과 그들이 간극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때 사후 인터뷰를 통해 각 출연자의 감정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시즌 4에 걸쳐 372회가 방영되었으며, 이미 40쌍이 넘는 가상 부부가 참여하였다.

중국의 <我們相愛吧>는 중국 리얼리티 쇼 장르에서 최초로 ‘연애’ 영역으로 그 소재를 확대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우리 결혼 했어요>를 제작한 MBC 방송국과 중국의 강소위성 방송국이 공동 제작하였다. 한국판과 마찬가지로 출연자는 대부분 인기 배우들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사랑을 믿고 사랑을 연습하며 사랑을 즐기는 것이다. 연예인들의 아

름다운 연애와 가상 결혼 생활을 시청자가 지켜보면서 그들이 ‘꿈’을 키워 가고 사랑의 기교를 연습하며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하고자 한다. 이 방송에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고전적인 레퍼토리가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서로의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응원을 가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실제 커플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들이다.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의 전통 문화의 특징과 지역적 특징을 드러내는 내용들도 추가되어 중국 시청자들에게 더욱 친근한 감정을 불러넣었다. 한편, 최근 시즌부터는 3쌍의 스타 커플 외에도 일반인 커플 4쌍이 포함되어 서로 만나고 나아가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높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며 시청자로 하여금 진실된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2015년 4월 19일 첫 방송이 방영된 이후 각 시즌별 12회~14회로 제작되었으며 현재는 시즌 3이 중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를 수집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동일한 포맷의 리얼리티 쇼에 나타나는 칭찬 화행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정 남녀 관계에서 칭찬 화행의 문법 구조, 칭찬 화행 어휘 사용, 칭찬 화제 및 칭찬 대상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 칭찬 화행 기능과 칭찬 화행의 분류 및 칭찬 화행의 응답 양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양국 칭찬 화행 사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방송된 한국 리얼리티 쇼 <우리 결혼했어요>의 21회(제 352회~제 372회) 분량의 방송과 이에 상응하는 중국 예능 프로그램 <我們相愛吧>의 26회(시즌2 제 1회~시즌3 제 14회) 분량의 방송을 바탕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칭찬 화행 및 응답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결혼했어요> 21회 분량의 방송분과 <我們相愛吧> 26회 분량의 방송분에서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 분포를 <표3>와 <표4>에서 정리하였다.



<표3> 한국 리얼리티 쇼 <우리 결혼했어요>의 칭찬 화행 사례 (21회 분량)

회차	한국 사례 번호	사례 수량
제 352 회	한/예-113) ~ 한/예-6	6
제 353 회	한/예-7 ~ 한/예-11	7
제 354 회	한/예-12 ~ 한/예-13	2
제 355 회	한/예-14 ~ 한/예-18	5
제 356 회	한/예-19 ~ 한/예-24	6
제 357 회	한/예-25 ~ 한/예-30	6
제 358 회	한/예-31 ~ 한/예-33	3
제 359 회	한/예-34	1
제 360 회	한/예-35 ~ 한/예-37	3
제 361 회	한/예-38 ~ 한/예-39	2
제 362 회	한/예-40 ~ 한/예-43	4
제 363 회	한/예-44 ~ 한/예-50	7
제 364 회	한/예-51 ~ 한/예-52	2
제 365 회	없음	0
제 366 회	한/예-53 ~ 한/예-65	13
제 367 회	한/예-66	1
제 368 회	한/예-67 ~ 한/예-71	5
제 369 회	한/예-72 ~ 한/예-75	4
제 370 회	한/예-76	1
제 371 회	한/예-77 ~ 한/예-81	5
제 372 회	한/예-82 ~ 한/예-86	5

13) 한/예-1: 한국 리얼리티 쇼<우리 결혼 했어요> 사례 번호 1.

<표4> 중국 리얼리티 쇼 <我們相愛吧>의 칭찬 화행 사례 (26회 분량)

회차	한국 사례 번호	사례 수량
시즌 2 제 1회	중/예-114) ~ 중/예-4	4
시즌 2 제 2회	중/예-5 ~ 중/예-9	5
시즌 2 제 3회	중/예-10 ~ 중/예-16	7
시즌 2 제 4회	중/예-17 ~ 중/예-19	3
시즌 2 제 5회	중/예-20 ~ 중/예-23	4
시즌 2 제 6회	중/예-24 ~ 중/예-26	3
시즌 2 제 7회	없음	0
시즌 2 제 8회	중/예-27 ~ 중/예-28	2
시즌 2 제 9회	중/예-29 ~ 중/예-34	6
시즌 2 제 10회	중/예-35 ~ 중/예-41	7
시즌 2 제 11회	중/예-42 ~ 중/예-44	3
시즌 2 제 12회	중/예-45	1
시즌 3 제 1회	중/예-46 ~ 중/예-56	11
시즌 3 제 2회	중/예-57 ~ 중/예-70	14
시즌 3 제 3회	중/예-71 ~ 중/예-82	12
시즌 3 제 4회	중/예-83 ~ 중/예-88	6
시즌 3 제 5회	중/예-89 ~ 중/예-94	6
시즌 3 제 6회	중/예-95 ~ 중/예-96	2
시즌 3 제 7회	중/예-97 ~ 중/예-100	4
시즌 3 제 8회	중/예-101 ~ 중/예-108	8
시즌 3 제 9회	중/예-109 ~ 중/예-111	3
시즌 3 제 10회	중/예-112	1
시즌 3 제 11회	중/예-113 ~ 중/예-116	4
시즌 3 제 12회	중/예-117 ~ 중/예-120	4
시즌 3 제 13회	중/예-121 ~ 중/예-126	6
시즌 3 제 14회	중/예-128 ~ 중/예-132	5

14) 중/예-1: 중국 리얼리티 쇼<我們相愛吧> 사례 번호 1

3. 연구 이유

칭찬 화행에 관한 연구에 대한 소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첫째, 특정한 혹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삼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 작성 방식은 연구자의 최초 연구 설계에 따라 연구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반면 인위적으로 고정된 프레임과 상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진실만을 반영하게 되며 따라서 피조사자의 진실한 생각을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드라마 대본을 검토하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 현대를 배경으로 일상적인 주제의 드라마의 경우는 어느 정도 현실 생활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적인 드라마라 하더라도 드라마 대본은 특정 작가 및 특정 작가단체에 속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는 작가가 만들어 낸 것으로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말투 등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곤 한다. 또한, 작가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텔레비전 토크 쇼의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연구의 장점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응답자의 진실한 속마음을 취재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에는 수많은 언어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된 칭찬 화행 내용의 일부는 응답자가 언급한 것으로 다양성이 부족하고 또한, 대부분이 강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요즘 유행하는 리얼리티 쇼에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설문조사의 정형화된 틀과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었으며 작가에 의해 미리 설정된 드라마 대본의 대사와는 차별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출연자들이 주체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토크쇼 진행자의 목적에 따른 일방적인 칭찬 유형과 구분될 수 있다. 종합하자면 리얼리티 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진실한 생각을 최대한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두 프로그램은 유사한 프레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장르의 차이를 피할 수 있으며 두 프로그램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제작된 것으로써 현재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양국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더욱 전형적으로 실제성과 현재성을 반영하는 사례가 된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두 프로그램 중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를 수집하여 연애 대상 혹은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한·중 양국의 화자는 실제로 어떠한 유형의 칭찬 발화를 사용하는지 한·중 양국의 칭찬 화행은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한·중 칭찬 화행의 대조 분석

1. 한·중 칭찬 화행의 유형의 대조 분석

칭찬 화행은 예의를 표현하는 언어이며 인류 사회가 형성된 이래 장시간에 걸쳐 구축된 일종의 습관적인 언어이다. 이는 언어적 수사법의 결정체이자 문화 요소가 쌓여 만들어진 산물이다. 따라서 칭찬 화행의 구체적인 표현은 각 사회·민족에서 요구되는 교제 방식에 의해 형성되며 각 사회·민족의 구성원의 예의의 대한 중시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신분, 성별, 사회적 지위, 시간, 장소, 화제 등의 요소로 인해 언어 사용에 제약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칭찬 행위는 정확해야 하며 동시에 규범에도 적합해야 한다.

본 연구는 楊迪(2007)의 분류 방법을 참조하여 한·중 양국 프로그램에 등장한 칭찬 화행 자료를 직접적 칭찬, 간접적 칭찬, 언급 있음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화제의 독립변수에 따른 한·중 칭찬 화행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가. 직접적 칭찬

직접적 칭찬 화행은 칭찬 대상의 좋은 점에 대한 정형적이고 명시적인 칭찬 표현 유형으로 직접적인 언어 행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언어 환경을 벗어나서도 칭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 직접적 칭찬은 대부분 간단명료

하며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칭찬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칭찬은 좋은 의미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고 ‘真好/좋다, 漂亮/예쁘다, 了不起/대단하다, 棒/짱이다’ 등의 단어는 칭찬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또한 한국어에서도 ‘참 잘했다, 잘 생겼다, 정말 예쁘다, 아주 귀엽다’ 등의 직접적인 칭찬 화행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역시 칭찬의 의미가 매우 명확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판 <我們相愛吧>의 26회 방송분에서는 총 132건의 칭찬 화행 관련 사례가 나타났으며 그 중 직접적 칭찬 사례가 80건에 이르러 전체 사례의 6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21회 방송분에서 나타난 86건의 칭찬 화행 사례 가운데 68건이 명확하고 직접적인 칭찬 사례였다. 비록 중국어와 한국어가 서로 다른 언어지만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비교해 보니 한국과 중국의 직접적 칭찬 화행 사용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하였다. 실제 사례 중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어의 ‘美/예쁘다’, ‘好帥/멋있다’, ‘厲害/대단하다’, ‘可愛/귀엽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칭찬 화행을 드러낸다.

- (1) ㄱ. 魏大勛：你太美了。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중/예-5)
- ㄴ. 陳柏霖：你自己做啊？那么厲害。自己做很厲害呀。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전부 다 하다니, 얼마나 대단한데요.)(중/예-6)
- ㄷ. 陳柏霖：這個還好啊。這個很可愛啊。
(이거 괜찮네요. 아주 귀여워요.)(중/예-7)
- ㄹ. 周冬雨：你真的是太棒了。(너 진짜 대단하다.)(중/예-17)

위의 중국어 사례는 전형적인 칭찬 어휘를 사용하여 대화 환경을 떠나

서도 명확한 칭찬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맛있다’, ‘멋있다’, ‘예쁘다’, ‘잘 한다’, ‘대단하다’, ‘귀엽다’도 직접적 칭찬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이다.

- (2) 가. 정혜성: 귀여워, 엄청 열심히 하네.(한/예-27)
- 나. 슬리피: 오늘 너무 예뻐.(한/예-55)
- 다. 장도연: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아름답다. (한/예-64)
- 르. 장도연: 국물 맛있네. 국물 맛있어 엄청.(한/예-72)
- 미. 공 명 : 기타를 잘 치네.(한/예-76)

‘맛있다’ 같은 경우 주로 음식에 대해 칭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어휘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예쁘다’는 여자 외모에 대해 칭찬할 때 많이 사용한다. 반면 ‘멋있다’는 대부분 남자의 외모나 행동을 칭찬할 때 사용한다. 그 이외에도 작은 물건이나 풍경에 대한 칭찬을 할 때에도 ‘예쁘다’, ‘멋지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한 의미의 다른 표현을 살펴보면 ‘멋있다’와 비슷한 ‘잘 생기다(잘생겼다)’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에서 직접적인 칭찬을 할 때 사용하는 어휘에 유사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점도 존재한다. 먼저 한국 대화 사례를 보면 음식에 대한 직접 칭찬은 ‘맛있다’ 이외에는 다른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맛있다/好吃’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이외에도 실제 대화 상황에서 ‘口齒留香’, ‘色味俱佳’, ‘滑嫩爽口’, ‘香味四溢’ 등의 사자 성어를 통해 맛있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도 비슷한 의미의 사자 성어 ‘진수성찬’이 있지만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중국에 비해 많지 않다. 음식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다른 칭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이 보이는데 한국어의 직접 칭찬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간단하고 몇몇 칭찬 어휘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중국은 직접적인 칭찬 어휘가 한국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

하게 쓰인다. 따라서 같은 어휘의 사용 빈도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연인이나 부부와 같이 특정한 남녀 관계에서 사용하는 직접적 칭찬 주제를 살펴보면 칭찬 경향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성격이나 능력, 소유물 등에 대해 칭찬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 그 빈도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대상의 외형 즉 외모에 대한 칭찬 빈도는 중국에 비해 높은 경향이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칭찬 화행을 살펴보면 일부 어휘 사용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귀엽다/可愛’라는 직접적 칭찬 어휘의 대부분은 아이, 애완동물, 작은 물건을 대상으로 칭찬할 때 사용한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일부 성인 남성에게도 ‘귀엽다’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용인되지만 중국에서는 남자에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나. 간접적 칭찬

‘직접’에 대응하는 어휘는 ‘간접’이다. 칭찬 화행도 마찬가지로 직접적 칭찬과 간접적 칭찬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자가 직접적 칭찬을 행할 때 적절한 칭찬 어휘를 사용한다면 대화 환경을 떠나서도 칭찬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반대로 간접적 칭찬은 직접적 칭찬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달리 반드시 대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대화 맥락을 통해서만 칭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간접적 칭찬 화행은 언어 형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표현한다.

許立生(1997)은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권에서는 인간 사이의 공통점이 언어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며 마음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여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칭찬

화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칭찬 화행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간접적 칭찬 화행은 간접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각종 암시적 요소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깨닫는다. 뿐만 아니라 간접 칭찬은 종종 칭찬 받는 사람이 응답할 필요가 생략되므로 체면을 지키고 겸손하게 처신할 수 있어 청자가 직접적 칭찬 화행에서 겪을 수 있는 칭찬 응답의 난처함을 감소시킨다. 즉, 간접적 칭찬 화행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이를 분명하게 수용 또는 거부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말에 거절 또는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어색하게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은 유교 문화 사상의 영향이 크고 유교 사상에서는 겸손을 중시한다. 따라서 타인을 직접 칭찬할 경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칭찬 응답을 선택해야 겸손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지 적절한 반응에 대해 순간 고민하게 된다. 이에 화자는 직접적인 칭찬 대신 간접적인 칭찬을 통해 칭찬의 의도는 드러내되 청자의 당황을 배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직접 칭찬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간접적 칭찬 역시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칭찬 유형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 칭찬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양의 칭찬 화행 연구는 서양의 칭찬 화행 연구에 비해 직접 칭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서양권의 칭찬 화행은 장면에 따른 칭찬 화행 표현이나 구조가 상당히 고정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칭찬 화행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간접적 칭찬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간접적 칭찬은 칭찬 성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배경, 화자 간 관계, 대화 맥락 등 대화 시의 언어적 환경을 빌어야 비로소 칭찬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서양권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있어 대화 상황에서의 언어적인 환경에 대

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 사람들은 의사소통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내용이나 감정 등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대화 상황에서의 언어적인 환경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간접적 칭찬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칭찬 화행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한·중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치의 흐름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므로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간접적인 칭찬은 직접적 칭찬과는 달리 언어 환경을 벗어나서는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간접적 칭찬의 세부 유형은 앞서 이룬 배경 부분은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그 중 김현정(1996)과 전지원(2002)의 간접 칭찬 세부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5>과 같다.

<표5> 김현정(1996)과 전지원(2002)의 간접 칭찬 세부 유형 분류

저자	세부 분류
김현정(1996)	알아채기(identification)
	정보 묻기(information seeking)
	개인적인 의견(personal comment)
	농담하기(joke)
	설명하기(comment detail)
	요청·제시(asking·suggestion)
전지원(2002)	알아채기(identification)
	정보 묻기(information seeking)
	개인적인 의견(personal comment)
	농담하기(joke)
	요청·제시(asking·suggestion)
	비언어적 행위(nonverbal messages)
	감탄(expressing surprise)
	감사하기(thanking)
	축하하기(congratulation)
	격려·부탁(encouragement)

앞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접적 칭찬은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그 비율이 낮

았으며, 앞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접적 칭찬은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 칭찬 역시 칭찬 화행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칭찬 화행 연구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간접적인 칭찬이 간접적 칭찬 유형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김현정(1996)과 전지원(2002)의 간접적 칭찬 분류 방식을 참조하여 실제 나타난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표6> 본 연구 중 간접적 칭찬 세부 유형 분류

간접칭찬 유형	유형별 설명
알아채기	화자가 칭찬 대상의 좋은 점에 대한 인지를 나타내는 칭찬 화행 유형이다.
정보 묻기	화자가 칭찬 대상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에 대해 물어보는 칭찬 화행 유형이다.
개인적인 의견	화자가 칭찬 대상에 대한 자신의 부러움, 기대, 소망 및 기타 주관적 의견을 통한 칭찬 화행 유형이다.
감탄	화자가 칭찬 대상에 대한 감탄 표현을 통한 칭찬 화행 유형이다.
농담하기	화자가 칭찬 대상에 대한 농담을 통한 칭찬 화행 유형이다.
감사하기	화자가 칭찬 대상 덕분에 일, 생활 등이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다고 전하는 칭찬 화행 유형이다.
격려·부탁	화자가 칭찬 대상에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게 하는 칭찬 화행 유형이다.
요청·제시	화자가 칭찬 대상의 좋은 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요청이나 칭찬 대상에 관한 제안을 통한 칭찬 화행 유형이다.
비유	화자가 칭찬 대상에게 비유 수사법을 통한 칭찬 화행 유형이다.

(1). 알아채기(identification)

(3) ㄱ. 吳昕: 你是我兒時的偶像嘛.

(너는 내가 어렸을 때 아이돌 가수였잖아).(중/예-85)

ㄴ. 정혜성: 엇, 아까 바리스타가 해준 거랑 맛이 좀 달라...(한/예-38)

(2). 정보 묻기(information seeking)

(4) ㄱ. 吳昕: 你怎麼會這個,你出道的時候在按摩院待過嗎?

(이런 솜씨도 있네, 어떻게 하는 거야? 너 혹시 안마시술소에서 일해 봤니?) (중/예- 110)

ㄴ. 슬리피: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한/예-6)

(3). 개인적인 의견(personal comment)

(5) ㄱ. 吳昕: 那個手法明顯是練出來的.

(그 수법은 분명히 연습한 거야).(중/예-106)

ㄴ. 정혜성: 장사해도 되겠슈. 장사해도 되겠슈.(한/예-29)

(4). 감탄(expressing surprise)

(6) ㄱ. 宋智孝: 真的嗎? 我現在看你就像超人一樣.

(진짜? 너 지금 슈퍼맨 같아!)(중/예-18)

ㄴ. 슬리피: 못 하는 게 없조!(한/예-59).

(5). 농담하기(joke)

(7) ㄱ. 공명: 순간 흑했다.(한/예-20)

ㄴ. 魏大勛: 我感覺你在給我拋媚眼,我感受到一股電流,滋滋滋.

(네가 나에게 매혹적인 눈빛을 던지는 것을 느꼈어. 마치 감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중/예-23)

(6). 감사하기(thanking)

(8) ㄱ. 슬리피: 매일 이렇게 밥 먹으면 행복하겠다.(한/예-6)

나. 이국주: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오빠의 힘으로 제가 나아가고 있어서 덕분에 기다리고 있던 광고도 찍었어요.(한/예-58)

(7). 격려·부탁(encouragement)

(9) ㄱ. 魏大勛: 但我能看出來你練了很長時間了.
(그런데 네가 오랫동안 연습했다는 것을 그냥 봐도 알 수 있었어.)(중/예-37)

(8). 요청·제시 (asking·suggestion)

(10) ㄱ. 陳柏霖: 你要教我,因為我不太會玩.
(너는 나한테 가르쳐줘. 나 이거 잘 못해.)(중/예-11)

(9). 비유(metaphor)

(11) ㄱ. 陳宇浩: 感覺你像天使一樣, 突然就出現在我的面前.
(너는 천사처럼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났어.)(중/예-47)

<우리 결혼했어요>와 <我們相愛吧>에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한·중 모두 개인적인 의견, 감탄, 농담하기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김현정(1996)과 전지원(2002)의 간접적 칭찬 분류에서 언급한 비어언적 행위와 축하에 관련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유(比喩)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을 이르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수사법 중 하나이다. 위에서 밝혔듯 간접적 칭찬은 직접적 칭찬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달리 실제 언어 환경을 고려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비유를 사용한 칭찬 사례 역시 간접 칭찬 유형 중 하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어언적 행위와 축하하기 유형을 대신하여 비유 유형을 추가하겠다. 비유를

사용한 칭찬 방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간접 칭찬 유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감사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 언급 있음

칭찬 화행 유형 중에서 화자가 청자의 외모나 소유물, 능력에 대해 언급하지만 명확한 칭찬 어휘를 사용하지 않거나 청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여 칭찬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이를 ‘언급 있음’ 유형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겠다.

- (12) ㄱ. 魏大勛: 其實我喜歡優雅的.
(사실 저는 우아한 여자를 좋아해요.)(중/예-3)
- ㄴ. 陳柏霖: 你很厲害嗎? (정말 잘 하세요?)(중/예-6)
- ㄷ. 鄭凱: 你媽的法語是不是特別好?
(당신 어머님께서는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시나요?)(중/예-61)
- ㄹ. 王歐: 你會冲浪嗎?(파도 탈 줄 아니?)(중/예-99)
- ㅁ. 공명 (남동생): 저희 형 애교 많은 여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예-41)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언급 있음’ 유형의 칭찬 화행은 대부분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의 칭찬 화행은 직접적인 칭찬과 간접적인 칭찬에 비해 한·중 모두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국에서 일부 사례가 나타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吳惠貞(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칭찬 화행 설문조사 결과 ‘언급 있음’

의 칭찬 화행을 중국 학생의 경우 5.9%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 학생은 3.3%만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 한·중 칭찬 화행 문법 구조 대조 분석

칭찬 화행은 일종의 예절 용어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를 행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언어 요소이다. 이러한 칭찬 화행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언중들 사이에 사용되면서 일부 문법 구조가 고정되었다.

가. 중국어 칭찬 화행의 대표적인 문법 구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 가운데 중국어 칭찬 화행의 대표적인 문법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정도 부사 + 형용사

(13) ㄱ. 周冬雨：很親切，真的。(아주 친절해요. 진짜로요.)(중/예-41)

(2). 정도 부사 + 형용사 + 명사

(14) ㄱ. 宋智孝：我覺得你是個溫暖的人。

(내 느낌으로는 네가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중/예-18)

(3). 너(명사) + 동사 + 정도 부사 + 형용사

(15) ㄱ. 魏大勛爸爸：你演的非常非常好. (네가 하는 연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중/예-30)

ㄴ. 暢恬：.我覺得你跳得特別好，確實是特別好. (당신 진짜 춤을 잘 추네요. 정말 잘 했어요.)(중/예-55)

(4). 너(명사) + 정도 부사 + 형용사

(16) ㄱ. 魏大勛爸爸：小沁沁非常賢惠. (小沁沁은 매우 현모양처야.)
(중/예-30)

위의 사례에서는 대부분 문장을 시작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청자로 하여금 칭찬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양식을 보인다.

나. 한국어 칭찬 화행의 대표적인 문법 구조

중국과 유사한 형식의 한국어 칭찬 화행의 대표적인 문법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정도 부사 + 형용사

(17) ㄱ. 공명：너무 귀엽다.(한/예-9)

(2). 명사 + 형용사

(18) ㄱ. 장도연：국물 맛있네. 국물 맛있어 엄청.(한/예-72)

(3). 정도 부사 + 형용사 + 동사

(19) ㄱ. 정혜성: 진짜 잘 가르쳐요.(한/예-33)

(4). 명사 + 정도부사 + 형용사

(20) ㄱ. 정혜성: 귀가 너무 잘했어. 우리 남편.(한/예-35)

(5). 명사 + 정도 부사 + 동사

(21) ㄱ. 공명: 요리 진짜 잘하는데? (한/예-10)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한·중 양국의 칭찬 문법 구조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직접적인 칭찬에서만 문법 구조가 고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한·중 모두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특히 칭찬 정도를 강하게 표현할 때에는 형용사 앞에 정도부사를 붙여서 사용한다.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중국에서는 칭찬 대상 및 칭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명사나 인칭 대명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특히 ‘너’나 ‘너의’와 같이 2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칭찬 대상을 가리켜 말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러한 칭찬 화행의 문법 구조를 통해 상대를 강하게 칭찬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에 비해 칭찬 화행의 구성이 더 간단하여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화자는 칭찬할 때 2인칭 대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 사례 중에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사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3. 한·중 칭찬 화행 어휘 대조 분석

앞에서 이미 칭찬 유형 가운데 직접적 칭찬에서 자주 사용하는 칭찬 어

회를 간단하게 언급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한·중 칭찬 화행 어휘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중국어와 한국어의 칭찬 어휘는 형용사, 명사, 동사 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 칭찬 중 좋은 의미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중국어 ‘真好(좋다), 漂亮(예쁘다), 了不起(대단하다), 棒(짱이다)’ 등의 어휘가 흔히 보인다. 한국어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잘했다, 잘 생겼다, 정말 예쁘다, 아주 귀엽다’ 등의 어휘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가. 중국어 칭찬 화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중국의 경우 방송에서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 중 ‘대단하다’, ‘예쁘다’, ‘잘하다’의 칭찬 어휘가 각각 6회 이상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칭찬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일부 사례는 아래와 같다.

- (22) ㄱ. 余文樂: 我喜歡你這樣的,特別一點的.
저는 당신 같은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아주 특별해요. (중/예-1)
- ㄴ. 魏大勛: 其實我覺得你整個看來,給我的這種感覺,都是很周到的. 사실 너를 보고 내가 받은 느낌은 네가 모든 면에서 아주 꼼꼼하다는 거야. (중/예-14)
- ㄷ. 陳柏霖: 你的顏色很可愛.(腳趾顏色). (이 색깔 너무 귀여워요.) (중/예-12)
- ㄹ. 周冬雨: 你真的是太棒了.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중/예-17)
- ㅁ. 宋智孝: 好厲害,連這個都知道. (멋있다. 그런 것도 알아요?)(중/예-20)
- ㅂ. 陳柏霖: 你做的辣椒醬真的很好吃.
(당신이 만든 고추장 정말 맛있어요.)(중/예-22)
- ㅅ. 宋智孝: 看到你今天工作的樣子,感覺你非常專業,非常帥.
(오늘 당신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전문가다웠고 진짜 멋있어요.)(중/예-33)

나. 한국어 칭찬 화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어와 유사하게 ‘잘하다, 귀엽다, 예쁘다, 맛있다, 멋있다, 대단하다,’ 등 칭찬 화행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주로 나타났으며 그 빈도 역시 높았다. 어휘의 빈도를 살펴보면 ‘잘하다’ 10회, ‘귀엽다’ 8회, ‘예쁘다’ 7회, ‘맛있다’ 6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일부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3) 가. 이국주: 대단하다. 오빠 이걸 어떻게 했냐? (한/예-4)
 나. 슬리피: 대박, 나 이거 엄청 좋아해. (한/예-5)
 다. 공명: 너무 귀엽다. 애기했어. (한/예-9)
 르. 공명: 응. 맛있네. (한/예-10)
 무. 정혜성: 잘 생기고 키도 크고 수영도 잘해요. (한/예-15)
 바. 이국주: 대단하다. (한/예-23)

<표7> 한·중 칭찬 어휘 사용 분포

분류	중국		한국	
	비율	대표적인 어휘	비율	대표적인 어휘
형용사	90.2%	厲害 대단하다 漂亮 예쁘다 可愛 귀엽다	94.2%	잘하다 귀엽다 예쁘다
명사	5.3%	超人(슈퍼맨) 神槍手(명사수) 才華 (재능)	5.8%	절대 음감 화복 동안
동사	4.5%	보기 어렵다	0	없음 ¹⁵⁾

15) 해당되는 사례가 없음.

위의 <표7>은 한·중 칭찬 어휘 사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프로그램에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에서 한·중 양국 모두 형용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90% 넘었다. 명사 사용 비율 역시 한·중 양국에서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국의 사례에서 동사의 사용 비율은 형용사에 비해 상대적 낮은 수치인 4.5%를 차지하였으나 명사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된다. 반면 한국의 사례에서는 동사를 사용하여 칭찬한 사례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중 칭찬 어휘 중에서 형용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 이외에도 유사점이 하나 더 있다. 칭찬 어휘 사용 시 앞에 항상 따라오는 정도 부사의 존재이다. 정도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 칭찬 어휘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시간 등을 제한할 때 사용한다. 한·중 칭찬 화행에서 형용사가 같이 나타나는 부사의 대다수가 정도부사이며 이는 칭찬 화행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4. 한·중 칭찬 화행 화제 및 칭찬 대상 대조 분석

칭찬 화행 중 칭찬 화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Wolfson과 Manes(1980)은 일상 대화를 수집한 1200개 사례를 분석하여 화자의 칭찬 대부분은 외모, 소유물, 능력이나 성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napp(1984)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칭찬의 소재가 수행력, 옷차림, 외모, 성취, 소유물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Holmes(1988)의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칭찬 화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외모, 능력, 수행력, 소유

물 및 개인 성격을 칭찬 화제의 집중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밝혔다. 한·중 칭찬 화제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하여 주로 외모, 능력, 수행력, 소유물 위주로 칭찬 화제를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鄒琳琳(2016)는 중국 인터뷰 프로그램 나타난 자료를 대상으로 칭찬 화제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외모, 능력, 수행력, 소유물 이외에도 가족, 직업, 절조, 영향력 등의 화제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칭찬 대상에 따라 칭찬 화제도 달라지는데, 칭찬 화제가 칭찬 대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칭찬 대상을 세 종류로 분류한다. 첫째, 청자에 대한 칭찬이다. 이는 청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제로서 청자의 성격이나 재능이 이에 속하며 그 외에도 청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소유물도 해당한다. 둘째, 화자에 대한 칭찬이다. 마지막으로 제삼자에 대한 칭찬이다. 이는 청자와 화자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제삼자에 대한 화제로써 어떠한 특정 장소나 풍경 등도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 대상에는 이상 진술한 세 가지 유형의 칭찬 대상이 모두 등장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청자에 대한 칭찬 화제

칭찬 대상에 따른 칭찬 화행 가운데 청자에 대한 칭찬 화제가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아래에서는 청자를 대상으로 한 칭찬 화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외모에 대한 칭찬

특정 대상의 외모적인 특징은 눈에 쉽게 들어오기 마련이며 따라서 쉽게 칭찬 화제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화제는 매우 직접적이기 때문에 쉽

게 이해되므로 담화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고 청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한국과 중국의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외모에 대한 칭찬을 사용한 사례가 흔히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4) ㄱ. 宋智孝: 我特別喜歡你撩起劉海的樣子. (저는 Bobo가 앞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중/예-26)
- ㄴ. 史子逸: 有雙有神的眼睛, 漂亮的鼻梁, 一頭漂亮的秀發. (빛나는 두 눈동자에 오뚝한 콧날,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까지.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중/예-56)
- ㄷ. 史子逸: 你的髮型很棒, 就像我想象中的那樣. (당신 헤어 스타일도 예쁘고 잘 어울려요. 제가 상상한 모습과 똑같아요.)(중/예-70)
- ㄹ. 정혜성: 멋있어. 내 스타일이라니까.(한/예-3)
- ㅁ. 정혜성: 잘 생겼다. 이때 약간 미소년 느낌이네.(한/예-49)

위에서 나타난 청자의 외모에 대한 칭찬 사례는 모두 가상부부나 가상연인 관계에서 적당한 칭찬 화행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이러한 친근한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모 칭찬이 오롯이 제 기능을 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부부나 연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외모에 대한 칭찬은 천박한 찬미로 간주되거나 심지어 나쁜 의도로 간주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친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매우 결례가 되기도 한다.

(2). 성격에 대한 칭찬

개인의 성격은 내재적 수양과 기질의 체현이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칭찬에 비해 더 예의를 유지할 수 있어서 중국에서는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

에 대한 칭찬을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사람의 성격에 대한 칭찬을 역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칭찬은 천박한 찬미로 간주되거나 심지어 칭찬이 아닌 다른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의 성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극찬으로 간주된다.

- (25) 가. 宋智孝: 而且我覺得你是個溫暖的人.
(당신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중/예-18)
- 나. 魏大勛: 很有那種居家的女人的味道.
(살림을 잘하는 가정적인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요.)(중/예-24)
- 다. 魏大勛爸爸: 小沁沁非常賢惠. (小沁沁은 매우 현모양처야.)(중/예-30)
- 르. 공명: 많이 키가 커졌네.(한/예-3)
- 코. 정혜성: 배려심도 많고 생각이 깊어.(한/예-16)
- 브. 정혜성: 아이고 꼼꼼하네.(한/예-77)

(3). 기능 및 능력에 대한 칭찬

자아 가치의 실현에 대한 노력은 동서양 가치 체계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이러한 인간의 기능과 능력에 대한 칭찬 역시 비교적 자주 등장한다. 이 화제는 주로 칭찬 받은 사람의 지력, 능력, 특기, 기술 등의 측면에 집중된다. 이러한 칭찬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칭찬 화제이다. 이는 칭찬 이외에도 격려의 성격이 있으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할 경우 이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

- (26) 가. 宋智孝: 哇,看來你真的很會做菜哦. (와, 요리 되게 잘하구나.)

(중/예-21)

ㄴ. 魏大勛爸爸：你演的非常非常好.

(너의 연기는 정말이지 훌륭해.)(중/예-30)

ㄷ. 공명：요리 진짜 잘하는데.(한/예-10)

ㄹ. 슬리피：춤도 너무 잘 추고, 착하고 천상 여자야.(한/예-18)

(4). 가족 구성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칭찬

중국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등 가정에 대한 관념을 비교적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칭찬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생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며 상대방의 가족 구성원들을 칭찬할 경우에는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화자와 청자가 가상 부부나 가상 연인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삼았기에 가족 구성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칭찬에 더욱 대표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27) ㄱ. 暢話：真的是好年輕啊！你媽媽長得有点像香港的一个女演員，張敏.

(정말 젊으시네요. 당신 어머니는 홍콩 배우 張敏를 닮았어요.)

(중/예-54)

ㄴ. 鄭凱：我覺得孝順父母,很重要,我覺得還是阿姨教的好.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중/예-65)

ㄷ. 鄭凱：跟姐姐團們聊,果然真是受益匪淺,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좋은 점이 무척이나 많네요.)(중/예-67)

ㄹ. 이국주：미남이시네요. 아버님. (한/예-56)

(5). 소유물에 대한 칭찬

청자에 대한 칭찬 화제의 마지막 유형은 소유자의 경제 수준과 사회적 지위 또는 미학적 수양을 반영한 칭찬 화제이다. 작은 물건이나 의류, 액세

서리, 휴대 전화, 주택, 자동차나 애완동물 등 청자가 유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칭찬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물 이외에도 무형적으로 청자에게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칭찬도 자주 출현한다. 추상적인 소유물이나 디자인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며 일부 행위나 언어에 대한 칭찬 또한 능력에 대한 칭찬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너 정말 빨리 왔구나’, ‘아주 잘했어’, ‘네 말이 정말 맞는 말이야’ 등을 자주 들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소유물이나 디자인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며 일부 행위나 언어에 대한 칭찬 또한 능력에 대한 칭찬에 해당한다.

- (28) ㄱ. 暢話: 你家還蠻好大呀. (집이 굉장히 커요.) (중/예-52)
 ㄴ. 暢話: 你們家有好多好很復古的東西, 我剛還看到一個留聲機, 那個很少見. (당신 집에는 아주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방금 전에 축음기를 보았어요. 그거 요즘에는 보기 드물죠.) (중/예-53)
 ㄷ. 王鷗: 林朝章, 好文氣的名字. (林朝章, 꽤 점잖은 이름이네요.) (중/예-79)
 ㄹ. 이국주: 미남이시네요. 아버님. (한/예-56)

나. 화자에 대한 칭찬 화제

화자에 대한 칭찬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칭찬이다. 다만, 중국과 한국에서는 자신에 대한 칭찬 언어와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는 매우 적은 편이며 비교적 자기 자신에 대한 어필에 관대한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자신을 칭찬하는 빈도는 낮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칭찬 화행의 사용 역시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화자의 칭찬 화제와 청자의 칭찬 화제는 유사하다. 즉, 위에서 언급한

예의, 성격, 기능과 능력, 가족 구성원이나 관련자, 소유물 등은 모두 화자의 칭찬 화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화자가 자신을 칭찬할 때 화자가 속한 집단이 중요한 칭찬 주제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9) ㄱ. 余文樂：但是一樣東西我覺得，我蠻確定，就是那種真性，真性情。我們都是發自內心的。(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확고한 성격이에요. 타고난 천성이 그래요.)(중/예-28)

서양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달리 중국인들은 소속감을 더욱 중시하고 단체의 명예를 더욱 중시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을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을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의 화제로 삼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내 고향은 매우 아름답다’, ‘우리 집은 행복하다’, ‘우리 회사의 복지나 처우가 좋다’ 등과 같이 소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다. 제 3 자에 대한 칭찬 화제

다음의 칭찬 화제는 칭찬의 내용이 화자 및 청자와 모두 관계가 없는 제 3 자에 대한 칭찬이다. 이러한 화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날씨, 풍경, 다른 인물이나 다른 인물의 언행에 대한 칭찬 등 객관적 사물도 포함될 수 있다.

- (30) ㄱ. 王歐：地方很好，晚風很好，海很好，人也很好。
(여기는 정말 좋네요. 밤 바람도 좋고, 바다도 좋고 사람들도 아주 좋아요.)(중/예-109)
ㄴ. 장도연: 향이 너무 좋아.(한/예-6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칭찬 대상 중, 칭자에 대한 칭찬 화행 사례가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한다. 한·중 프로그램 모두 가상 부부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므로 칭자의 외모에 대해 칭찬 사례도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모두 외모보다는 성격, 능력, 가족, 소유물에 대한 칭찬이 더 많은 편이다. 특히 한국보다 중국에서 가족 및 소유물에 대한 칭찬이 더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중 모두 유교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회자에 대한 칭찬이 서양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중국의 사례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칭찬하는 것 아니라 둘의 공통점에 대해 칭찬하는 경향이 보인다.

5. 한·중 칭찬 화행 기능 대조 분석

칭찬화행은 일종의 중요한 예의 언어이자 사교적 언어 수단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어 한국과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칭찬 화행은 또한 일정한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적 규칙이 반영된 것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칭찬 화행의 표현 방식과 사용 역시 서로 다르며 그 기능도 다르다. 앞서 2장, 3장에서 칭찬 화행의 기능 및 특성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칭찬화행 기능을 교류 기능과 언어 기능으로 분류하고 그 중 교류 기능은 칭찬 대상에 따라 자기 칭찬, 상대방 칭찬, 제 3자 칭찬으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교류 기능

칭찬 화행은 보통 화자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위나 장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쌍방의 원활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칭찬 화행은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한 관계에서의 감정 언어이다. 賈玉新(1997)은 중국 문화는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칭찬 화행의 목적 역시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칭찬 화행을 통해 인사, 축하, 격려, 감사, 부탁, 만족 그리고 분위기 완화 등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자기 칭찬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추는 것으로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겸손이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언어와 행위에 대한 칭찬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칭찬 화행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칭찬 화행에 비해 현저히 적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칭찬할 경우 사람들은 이를 안하무인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거나 해당 인물을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 이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으며 특히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의 행동을 칭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자기 칭찬 기능은 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자기 인정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통해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경우 자기 칭찬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 (31) ㄱ. 宋智孝: 我很牛吧,我經常給我爸爸媽媽按摩的.
(잘했죠? 제가 우리 아빠, 엄마 자주 해 줘요.)(중/예-9)
ㄴ. 明道: 恩恩, 因為我本身也是很斯文的.
(네, 저는 원래도 아주 점잖기 때문이에요.)(중/예-80)
ㄷ. 슬리피: 멋있잖아, 느낌 완전 달라.(한/예-34)

(나). 자기 추천

타인이 자기의 장점을 알아주어 자기 자신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32) ㄱ. 王鷗: 而且真的并不是有那么多男生可以給你挑選的.
(정말 많은 남자들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明道: 我啊! 我可以挑. 我可以.
(나야. 괜찮지 않아? 골라도 됐잖아.)(중/예-87)

위와 같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남녀 관계에서 자기 칭찬을 통해 자기 인증 및 자기 추천 기능을 수행하였다.

(2). 상대방 칭찬

칭찬 화행은 본질적으로 교류 수단이며 상대방을 칭찬할 때 이러한 교류 기능이 더욱 두드러진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을 집중적으로 칭찬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나타난 사례를 통해 이를 여덟 가지 기능으로 세분한다.

(가). 찬사 기능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칭찬의 방식을 사용하여 칭찬 대상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 때때로 이러한 찬사 기능은 대상에 대해 순수한 감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33) 가. 余文樂: 我真的覺得你是很有自信的一个人.
 (너는 정말이지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중/예-1)
 나. 陳柏霖: 好幸福啊,你怎么那么厲害啊.
 (진짜 행복해. 너 왜 이렇게 대단해.)(중/예-9)
 다. 정혜성: 잘 생기고 키도 크고 수영도 잘해요.(한/예-15)
 리. 이국주: 오빠 최고야.(한/예-43)

(나). 응원과 격려 기능

칭찬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일종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칭찬과 긍정을 좋아한다. 따라서 칭찬 화행은 사람들을 더욱 노력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감을 잃었을 때 누군가가 해 주는 적절한 칭찬은 잃어버린 자신감이나 자존심을 북돋아 줄 수 있다.

- (34) 가. 宋智孝: 看到你今天工作的樣子,感覺你非常專業,非常帥.
 (오늘 당신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전문가다웠고 진짜 멋있었어요.)(중/예-33)
 나. 周冬雨: 你能堅持那么久,已經很棒啦.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해요.)(중/예-38)
 다. 徐芳: 我好想看你穿着這個,上台演出的樣子,肯定特別帥. (이것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틀림없이 아주 멋진 거예요.)(중/예-94)
 리. 정혜성: 장사해도 되겠슈. 장사해도 되겠슈.한/예-29
 리. 공명: 나보다 잘 타네.(한/예-2)

(다). 위로 기능

칭찬 화행은 항상 상대방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며 이러한 기능은 격려

와 유사하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하며 청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를 희망하며 또한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 (35) ㄱ. 宋智孝: 不是,你肯定很棒的.(아니요, 잘 할거야.)(중/예-11)
ㄴ. 魏大勛: 但我能看出來你練了很長時間了. (그런데 네가 오랫동안 연습했다는 것을 그냥 봐도 알 수 있었어.)(중/예-37)

이러한 칭찬 화행의 목적은 모두 상대방이 소극적인 정서가 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칭찬 화행을 통해 상대방을 위로하는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 아침 및 아부 기능

아침과 아부는 칭찬 화행의 또 다른 중요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의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춘 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도움을 받고 싶을 때나 상대방에게 자신을 감상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때때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칭찬을 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36) ㄱ. 魏大勛: 好吃. 你太美了.(맛있어요. 정말 예뻐요.) (중/예-5)
ㄴ. 이국주: 미남이세요. 아버님.(한/예- 56)

(마). 겸손 표현 기능

많은 경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려는 것이다. 즉, 칭찬하면서 자신이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자신이 타인에 비해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대다수는 이러한 칭찬 화행은 겸손 표현으로 사용된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자신

을 낮추는 것을 통해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은 일종의 미덕으로 작용하며 실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37) ㄱ. 宋智孝: 好厲害,連這個都知道.
(멋있다. 그런 것도 알아요?)(중/예-20)
- ㄴ. 周冬雨: 六叔,我覺得你的腰質,比我都柔軟.
(육아저씨의 허리가 저보다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중/예-34)
- ㄷ. 周冬雨: 好體力, 我已經滑不動了. 你真的太帥了. (체력이 좋아요.
저는 더 이상 못 타는 것 같아. 넌 정말 멋있구나.)(중/예-43)
- ㄹ. 明道: 我覺得你比我會畫一百倍.
(나보다 몇 백 배 정도 잘 그린 것 같아.) (중/예-98)
- ㅁ. 장도연: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한/예-72)

이러한 종류의 칭찬 화행은 흔히 비교 형식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동시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못하다는 표현을 동반한다.

(바). 인사말 기능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먼저 인사말을 건넨다. 비록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담화 주제로 들어가기 전 간단한 인사를 담화의 시작으로 삼는다. 칭찬 화행은 분위기 전환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인사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성들은 흔히 ‘너 못 본 사이에 정말 예뻐졌다’, ‘네 옷 정말 예쁘구나’,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려’ 등의 칭찬 화행을 인사말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들도 여성을 향해 이러한 칭찬 화행을 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청자는 이를 일종의 인사말로 받아들이며 문장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물론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칭찬 화행이 보인다.

- (38) ㄱ. 공명: 많이 키가 커졌네.(한/예-3)

(사). 만족과 감사 표시 기능

사람들은 선물을 받거나 친구의 초대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예쁘다’, ‘음식이 아주 맛있다’라고 칭찬을 하며 이는 만족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또한 남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매우 친절하다’ 등의 표현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한다. 가끔 이런 종류의 단어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긍정과 감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 (39) ㄱ. 徐芳: 但是因爲我平時很少回夏微信, 但是你是最堅持的那一個. (하지만 저는 평소에 위챗 답장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제일 강경한 사람이예요.)(중/예-49)
- ㄴ. 徐芳: 爲我準備的表演我覺得非常精彩, 從來都沒有見過, 這麼大的泡泡, 然後大泡泡裡面又有小泡泡. (저를 위해서 준비한 공연은 정말이지 멋있었어요. 이런 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거품이...그리고 거품 속에 작은 거품이 있어요.)(중/예-50)
- ㄷ. 슬리피: 매일 이렇게 밥 먹으면 행복하겠다.(한/예-6)
- ㄹ. 이국주: 2016년 스트레스를 다 푼 느낌이었어. 그 좋았던 공연보다도 트롬본 공연이 더 신났어.(한/예-24)
- ㄷ. 이국주: 요즘은 오빠의 힘으로 제가 나아가고 있어서 덕분에 기다리고 있던 광고도 찍었어요. (한/예-58)

이러한 칭찬 화행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고마움을 더욱 깊이 청자에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풍자 기능

풍자 기능은 ‘반어’적 칭찬 화행이다. 이러한 칭찬 화행은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본래의 칭찬 의미를 상실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풍자와 비방

등 상대방의 생각이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로 사용된다.

(40) ㄱ. 魏大助: 哄你跟哄孩子比起來, 你真的好多了.

(너를 달래는 게 아이를 달래는 것에 비해 훨씬 낫다고 봐.)(중/예
-27)

위와 같은 풍자 기능에 관한 사례는 풍자보다는 상대방에게 농담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도 칭찬 화행은 축하와 요청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본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례에서는 해당 기능의 예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생략한다.

(3). 제 3자 칭찬

제삼자에 대한 칭찬은 사람과 사물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칭찬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보통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러움 등의 기능을 나타낸다. 이는 청자를 칭찬하는 기능과 유사하므로 여기에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다시 서술하지 않겠다. 다만, 제삼자에 대한 칭찬은 칭찬 대상의 추천과 청자를 환기시키는 기능도 있다.

(가). 추천 기능

보통 청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할 경우 청자는 칭찬 대상의 장점을 알 수 있으므로 주로 인재 선발이나 소개 시에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결혼 중매인은 남녀를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여자를 ‘예쁘다’, ‘성격이 좋다’ 등과 같이 칭찬한다.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남자를 소개할 때에는 ‘사업에 성공했다’, ‘성실하고 신중하다’ 등과 같은 칭찬 화행을 사용하여 소개한다.

(41) ㄱ. 정혜성: 어머니님 목소리가 좋으시네, 애교가 많으시네. (한/예-68)

(나). 청자 환기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칭찬 상대방으로부터 유익한 측면을 배워 자기 자신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다짐한다.

본 연구의 한·중 칭찬 화행 사례는 대부분 남녀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위주이므로 제3자에 대한 칭찬 화행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추천 기능 및 청자를 환기 시키는 기능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다.

가. 언어 기능

칭찬 화행의 언어 기능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대화 속에서 칭찬 화행에 의해 형성된 역할을 가리키며 주로 화제 제기, 화제 잇기, 화제 전환 및 화제 종결 등의 4 가지로 나타난다.

(1). 화제 제기, 1 차 담화 시작

칭찬 화행을 통해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언어 기능이다.

(42) ㄱ. 陳柏霖: 好幸福啊,你怎么那么厲害啊.

(진짜 행복해요. 왜 이렇게 잘해요?)

宋智孝: 我很牛吧,我經常給我爸爸媽媽按摩的.

(잘했죠? 제가 부모님께 자주 해 드려요.)(중/예-9)

ㄴ. 陳柏霖: 你做的辣椒醬真的很好吃.

(당신이 만든 고추장 정말 맛있어요.)

宋智孝: 呵呵呵.(허허허) (중/예-22)

ㄷ. 暢恬: 哇, 是衣服. 好看么?

- (와, 웃이요. 예뻐요?)
 史子逸: 哇, 天啊, 不錯不錯.
 (와, 세상에, 괜찮네, 괜찮네.)(중/예-91)
- ㄹ. 이국주: 대단하다, 오빠 이걸 어떻게 했냐?(한/예-4)
 ㄷ. 슬리피: 이 맛있는 냄새 뭐야? 집안에 가득한 좋은 냄새.
 장조림이야?
 이국주: 응.(한/예-5)

(2). 화제 잇기

칭찬 화행을 통해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잇는 언어 기능이다.

- (43) ㄱ. 李沁: 我們之前見過一面嘛? 那你見我第一面的感覺是什麼樣子. /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럼 저를 본 첫인상이 어때요?)
 魏大勛: 優雅. (우아해요.)(중/예-3)
- ㄴ. 宋智孝: 我還會自己做香蠟燭. 用自己喜歡的香味. 下次做個送給你.
 (향초도 제가 만든 거예요. 다음번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향기로
 만들어 줄게요.
 陳柏霖: 你自己做啊, 那麼厲害. 自己做很厲害呀. 所以你今天送我的那
 個是你買的還是.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직접 만들다니 정말 대단해
 요. 그러면 오늘은 저에게 준 향초는 사준 게 아니라…….)(중/예
 -6)
- ㄷ. 슬리피: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한/예-6)

(3). 화제 전환

칭찬 화행을 통해 대화 주제를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언어 기능이다.

- (44) a. 정혜성: 내가 너무 뽀뽀이던데.
 공명: 나는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4). 화제 종결

칭찬 화행을 통해 대화 주제를 종결하는 언어 기능이다.

- (45) ㄱ. 魏大勛: 就是你少說点話. (말수 좀 줄여요.)
李沁: 很好, 特別好, 從現在開始我不說話了.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부터 난 말 안 할 거예요.)(중/예-3)
- ㄴ. 陳柏霖: 哇,太好了,看起來還好吧.
(와. 너무 좋아요. 괜찮아 보이겠죠?)
宋智孝: 很帥啊. 明天還想跟你一起約會.
(멋있어요. 내일 또 데이트하고 싶어요.)(중/예-8)

이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중 칭찬 화행의 주요 기능은 매우 유사하며 모두 인적 교류에서 쌍방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다소 다른 부분은 아부의 기능이 중국어에서 더욱 흔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칭찬 대상에 따른 교류 기능도 달라진다. 교류 기능 중 청자에 대한 칭찬 기능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양하게 나타났다. 교류 기능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한국과 중국에서 조금 다른 경향이 보인다. 먼저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겸손 표현 기능에 관련된 사례가 많이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는 만족과 감사 표시 기능에 관련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외에도 위로 기능은 중국의 사례만 나타났으나 이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한국의 프로그램에서는 위로 기능이 나타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성적인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에서는 언어 기능이 큰 작용을 발휘한다. 남녀가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관심이 있는 화제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언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쌍방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어색한 상황을 벗어날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

6. 한·중 칭찬 응답 유형 비교

가. 칭찬 응답의 분류

칭찬 화행은 인류의 언어 소통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언어 행위이다. 칭찬 화행은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표현 기능이 반영되어 있고 실생활에서 칭찬 화행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칭찬 화행과 그 응답은 관용어로 발전하기도 한다. 비록 중국인과 한국인의 칭찬에 대한 태도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에 출현한 칭찬 화행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일반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감사 이외에도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 또한 감사의 말을 대신하는 것이다.

(1). 수용 유형

수용 유형이란 간단하게 말해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동의하는 유형이다. 이는 상대방의 칭찬을 수용하는 반응을 보일 때 사용한다.

(가). 감사하기

상대방의 칭찬에 대한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응답하는 방법이다.

- (46) ㄱ. 宋智孝: 我現在看你就像超人一樣.
(당신 지금 슈퍼맨 같아요!)
陳柏霖: 呵呵.(허허) (중/예-19)

- ㄴ. 이국주: 미남이세요. 아버지.
- 슬리피의 아버지: 그래 고마워.(한/예-56)

(2). 동의하기

상대방의 칭찬에 대한 공감하고 수용할 때 응답하는 방법이다.

- (47) ㄱ. 周冬雨: 你真挺浪漫的. (당신 정말 낭만적이야.)
- 余文樂: 可以吧.(그냥 그래요.중/예-40)
- ㄴ. 정혜성: 오 맞아, 귀가 너무 잘했어 우리 남편.
- 공명: 그러저.(한/예-35)

(3). 칭찬 강화하기

상대방의 칭찬에 대한 공감하고 수용할 때 응답하는 방법이다.

- (48) ㄱ. 陳柏霖: 好幸福啊,你怎么那么厲害啊.
- (진짜 행복해요. 왜 그렇게 잘해요.)
- 宋智孝: 我很牛吧.我經常給我爸爸媽媽按摩的.
- (잘했죠. 제가 우리 아빠, 엄마 자주 쥐요.)(중/예-9)
- ㄴ. 이국주: 절대 음감이네.
- 슬리피: 난 절대 음감이다.(한/예-13)

(4). 겸손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겸손하게 응답하는 방법이다.

- (49) ㄱ. 鄭凱: 我覺得孝順父母,很重要. 我覺得還是阿姨教的好.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 鄭曉珮母: 那倒沒有,沒有. (아니요. 아니요.) (중/예-65)
- ㄴ. 공명: 요리 진짜 잘하는데.
- 정혜성: 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한/예-10)

(5). 칭찬 되돌리기

상대방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 되돌려 칭찬해 주는 것이다.

(50) ㄱ. 余文樂: 我喜歡你這樣的,特別一點的. (저는 당신 같은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아주 특별 해요.)

周冬雨: 六叔我覺得你是一個有品位的人.

(육 아저씨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중/예-1)

ㄴ. 공명: 키가 많이 커졌네.

정혜성: 멋있어졌네.(한/예-3)

나. 중립 유형

상대방의 칭찬에 수용도, 거절도 하지 않는 반응 유형이다.

(1). 설명하기

상대방의 칭찬에 대한 설명으로 응답하는 방법이다.

(51) ㄱ. 陳柏霖: 你的顏色很可愛.(腳趾顏色)

이 색깔 너무 귀여워요.

宋智孝: 因為要來巴厘島嘛. (중/예-12)

제가 발리에 가거든요.

ㄴ. 슬리피: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이국주: 감자, 설탕 넣었는데.(한/예-10)

다. 거절 유형

상대방의 칭찬을 거절할 때 사용하는 유형이다.

(1). 화제 전환

- (52) ㄱ. 魏大勛: 很有那种居家的女人的味道.
(살림을 잘하는 가정적인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李沁: 你需要帮忙嗎?(도움이 필요하신가요?)(중/예-24)
ㄴ. 공명: 기타를 잘 치네.
정혜성: (SAY YOU LOVE ME) 아. 영어 잘하지? (한/예-10)

(2). 부정

- (53) ㄱ. 吳昕: 你是我儿時的偶像嘛. (제 어린 시절 우상이었어요.)
潘玮柏: 我是你儿時的偶像? 我們只差三年. (제가 당신의 어린 시절의 우상이라고요? 우리 고작 세 살 차이인데.)(중/예-85)
ㄴ. 정혜성: 멋있어. 내 스타일이라니까.
공명: 아...그런말 좀 스스로없이 하지 마. 심쿵하게...(한/예-10)

(3). 질문

- (54) ㄱ. 宋智孝: 那次帮我捉虫子真的好勇敢. (벌레 잡았을 때 정말 용감해 보였어요.)
陳柏霖: 只有抓虫子的時候? (벌레 잡았을 때만?)(중/예-32)
ㄴ. 공명: 너무 귀엽다.애기했어.
정혜성: 우리 너무 귀엽대? (한/예-10)

위와 제시한 사례를 종합하여 한·중 칭찬 응답 유형에 대해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 유형 중 감사하기에서 중국 사례를 살펴보면 칭찬에 대해 ‘허허’ 웃는 표현으로 응답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 이외에도 ‘하하하’ ‘응’ 등의 표현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전체 사례 중 총 32회 나타났다. 한국도 유사하게 웃음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ㅋㅋㅋ’ 등으로 응답한 사례가 17번 정도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고마워’라는 감사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음으로는 동의하기 유형이다.

동의하기 유형은 중국에서는 주로 ‘可以吧’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화자의 발언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칭찬의 강도를 조금 약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한국 사례에서는 ‘그렇죠.’라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可以吧’ 라는 표현과는 달리 화자의 발언에 대한 약화의 의도는 없다. 그 다음으로 겸손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의 사례에서는 칭찬에 대해 이중 부정으로 칭찬 대응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다. 이는 본 연구 사례에서는 겸손 수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로는 말하는 사람의 표현 습관이나 맥락 등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 유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립 유형에서는 설명하기 유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화자의 발언에 대한 수용 대신 설명을 통해 본인의 중립 의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7. 친밀도에 따른 칭찬 응답에 대한 대조 연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가상 연애, 가상 결혼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출연자 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상대를 만나게 된다. 따라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어색하기도 하고 상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익숙해지고 친해져 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친밀도에 따른 칭찬 응답 양상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 프로그램 초반

- (55) ㄱ. 余文樂: 我覺得你越來越可愛了. (당신 점점 귀여워 지고 있어요.)
周冬雨: 走. (갑시다.)(중/예-32)

나. 프로그램 중반

- (56) ㄴ. 余文樂: 我發現其實你挺浪漫的.香港那次,
 這一次還提前一天來美國了. 還是有点招數的啊.
 (당신이 실은 정말 로맨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홍콩의 그 때,
 이번에는 또 하루를 앞당겨 미국에 오게 되었네요. 여전히 방법
 이 있구나.)
 周冬雨: 那你做過什么浪漫的事嗎?
 (그럼 당신은 어떤 낭만적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시즌 끝나기 전

- (57) ㄱ. 周冬雨: 爺們, 爺們, 棒棒的.
 (내 남자, 내 남자, 최고야.)
 余文樂: 我告訴你, 我的經驗就這樣子.
 (말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로 이렇게요.)

중국의 프로그램에서는 사례가 많은 편이어서 남녀가 만난 시기별로 칭찬 화행 및 칭찬 응답 사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프로그램 초반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칭찬을 했을 때 여자는 화제 전환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중반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 진 이후의 칭찬 화행과 응답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칭찬을 하자 여자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응답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질문 유형을 통해 두 사람이 더 깊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화제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최초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보다 칭찬 화행과 응답도 간단해졌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례에서는 프로그램 포맷이 가상 부부이므로 가상 연애 포맷을 허용하는 중국에 비해 프로그램 초반부터 더 높은 친밀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V. 한·중 문화적인 차원에서 칭찬 화행 차이 원인 분석

1. 문화 및 언어의 관계

문화의 정의는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다. 문화에 대한 시각과 범주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은 문화에 대해 정의를 내렸으나 아직까지 문화에 대한 공인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화에 대한 정의를 유형화하면 총체론적 관점과 관념론적 관점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영국의 인류학자 Edward Burnett Tylor (1871)의 정의가 유명하다. 그는 저서 <The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을 비롯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 총체’라고 정의하였다.¹⁶⁾ 반면 관념론적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린 학자로는 Goodenough(1975)가 있다. 그는 문화에 대해 ‘인간이 자신의 생활양식이 전체 사회의 구성인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 믿고 알아야 하는 모든 구성 요소’라고 정의하였다.¹⁷⁾ 본고에서 문화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문화란 생활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총칭으로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는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민족 문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동시에 문화는 언어의 발전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제약한

16) 2005년 1월 출판한 广西師範大學出版社 <The Primitive Culture> 의 번역본 인용.

17) 段岩 (2012) 跨文化視角下的英漢稱贊語對比研究.

다. 문화와 언어는 같이 존재하고, 상호 의존성이 있는 관계다.

2. 문화적인 차원에서 칭찬 화행 분석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로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예로부터 한국과 중국은 긴밀하게 문화 교류가 이뤄졌으며, 양국 모두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예의를 중시한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예의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 받는다. 즉, 유교 사상은 한국과 중국 문화의 기틀이 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간에 교양으로 인식되는 일종의 사회적인 의식이다. 유교 사상은 한국과 중국의 예의 규범의 바탕을 이루며 한국의 경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연유로 한·중 칭찬 화행은 전통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그러나 양국 문화가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띠게 되며 이에 따라 칭찬 화행의 사용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생겨났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중 칭찬 화행 대조 분석을 통해 이미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문화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어 한·중 칭찬 화행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가고 있다. 따라서 각 민족에 따라 다양한 신앙이 존재한다. 종교는 일정한 사회 형태를 표현하며 종교는 각자의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칭찬 화행의 운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이래로 유교 사상의 영향 아래 있었다. 유교는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한국 인구통계청의 2015

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가 절반에 가까운 4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불교 35.4%, 천주교 18%, 기타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교 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로 인해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滿招損, 謙受益 (교만은 화를 부르고 겸손은 복을 부른다.)’라는 명구는 중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다.

칭찬 화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자기만족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보아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 종종 거부, 부정 심지어 자신을 폄하하는 칭찬 응답을 사용한다. 이러한 칭찬 응답은 중국에서 수양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오랫동안 중국은 개인적 가치보다는 집단주의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단체 협력과 대인 관계의 조화를 중시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중국인들은 겸손하게 대답하거나 심지어 부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의 조화로운 대인 관계에 대한 강한 인식이 구체화된 것이다. 다만 중국의 칭찬 화행의 응답 방식이 모두 그러한 고정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일정한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연장자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전통적인 미덕이 있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의 나이가 많은 가족이나 친척, 나이가 어린 가족 구성원을 칭찬한다면 청자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또한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권의 영향으로 중국의 칭찬 화행 행위의 칭찬 응답도 영향을 받은 면이 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은 수용형 응답 방식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조선 시대 이래로 유교 사상의 영향력이 강했으나 근대부터 서양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며 한국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중국에 비해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은 윗사람과 대화할 때 겸손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꾸미지 않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원래의 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슷한 조건에서 한·중 칭찬 화행의 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은 직접적인 칭찬 비율이 중국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 유럽과 미국 등 서양 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에서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라는 추세에 맞추어 국제결혼 및 국가 간의 문화 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언어문화 분야 가운데서도 칭찬 화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이전에도 칭찬 화행에 대한 선행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여 통계학 방법으로 조사한 데이터 기반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다르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한·중 리얼리티 쇼 <우리 결혼했어요> 및 <我們相愛吧> 대화 내용을 취재하여, 그 중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아래와 같다.

첫째, 칭찬 유행 부분이 있어서 한국과 중국 유사한 칭찬 어휘를 사용하며 직접적인 칭찬 화행 사용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직접적 칭찬 화행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은 132건 중 80건으로 전체 사례의 61%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86건 중 68건으로 약 80%를 차지하여 중국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인 직접적 칭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직접 칭찬의 내용면에서 중국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단일한 표현에 집중된 반면 중국은 같은 주제에 대해 칭찬을 하더라도 실제 상황이나 화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칭찬 어휘 사용빈도는 한국은 동일한 어휘 사용하는 빈도가 중국보다 높은 반면 중국은 칭찬 어휘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일한 칭찬 어휘를 사용하는 빈도가 한국보다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접적 칭찬 화행의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한·중 모두 개인적인 의견, 감탄, 농담하기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감사 유형의 간접적 칭찬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인 칭찬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중국보다 한국 감사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언급 있음 유형은 중국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급 있음 유형에서는 대부분 의문형으로 칭찬 어휘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대상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칭찬 화행 문법 구조에 대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 ‘내 생각, 내 느낌으로’로 문장을 시작하는 칭찬 화행이 적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목적은 청자의 칭찬 응답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화자의 배려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문법 구조가 단일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칭찬 대상 및 칭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명사나 인칭 대명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너’나 ‘너의’와 같이 2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칭찬 대상을 명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칭찬 화행 문법 구조를 살펴보면 인칭 대명사, 특히 제2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칭찬 어휘 대조 분석한 결과 한·중 양국 모두 형용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양국 모두 90% 이상을 차지한다. 명사 사용 비율 역시 한·중 양국에서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동사의 경우 중국의 사례에서는 형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 4.5%를 차지하였으나 명사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된다. 반면 한국의 사례에서는 동사를 사용하여 칭찬한 사례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칭찬 어휘를 살펴본 결과 중국은 ‘대단하다, 예쁘다, 잘하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어휘가 각각 6회 이상 나타

났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칭찬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중국어와 유사하게 ‘잘하다, 귀엽다, 예쁘다, 맛있다, 멋있다, 대단하다,’ 등 칭찬 화행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주로 나타났으며 ‘잘하다’ 10회, ‘귀엽다’ 8회, ‘예쁘다’ 7회, ‘맛있다’ 6회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칭찬 화행 화제 및 대상에 대해 대조 분석한 결과 한·중 양국 모두 청자에 대한 칭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외모, 성격, 능력, 가족과 소유물을 주제로 많이 칭찬한다. 그 이외에도 사회의 변화로 인해 동양 사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칭찬 화행인 화자 자신에 대한 칭찬도 일부 나타났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의 경우 서양 문화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해 같이 칭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자에 대한 칭찬은 주로 날씨나 풍경, 다른 인물이나 그의 언행 등 청자와 화자 모두에게 관계가 없는 내용에 대해 칭찬을 행하는 것이다. 칭찬 주제를 살펴본 결과 한·중 모두 일상 생활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은 외모에 대한 칭찬 사례가 여러 번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화 상대가 가상 부부 혹은 가상 연애 대상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성격에 대한 칭찬은 국가에 따른 차이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대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한국보다 소유물을 주제로 한 칭찬 화행 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한국은 중국보다 기능 및 능력에 대한 칭찬 화행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 가치관 형성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다섯째, 칭찬 화행 기능을 대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류 기능은 자신을 칭찬할 때 나타나며 중국과 한국에서는 남녀 관계에서 자신 칭찬을 통해 자기 인정 및 자기 추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외에도 상대방을 칭찬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칭찬 화행 기능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찬사 기능은 한·중이 유사하고, 응원과 격려 기능, 겸손 표현 기능은 중국에서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족과 감사 표시 기능은 한국에서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아침 및 아부 기능은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하거나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실시하는 경향이 보인다. 본 연구 대상은 남녀 관계이기 때문에 칭찬 화행이 풍자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한·중 사례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회 나타난 사례 역시 풍자라고 해석하는 것 보다는 단순한 농담으로 여기는 편이 타당하다. 한편 언어 기능도 이런 남녀 관계의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 부분은 중국과 한국이 매우 유사하다.

여섯째, 칭찬 응답 유형 비교 결과 수용 유형 중 감사하기 유형에서는 중국의 경우 칭찬에 대해 ‘허허’ 웃는 표현으로 응답했다. 그 이외에도 ‘하하하’나 ‘응’도 많이 사용하여 전체 사례 중 총 32회 나타났다.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ㅋㅋㅋ’ 등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나 웃음 이모티콘으로 응답한 사례가 17회 나타났다. 이는 현실 생활에서도 메신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칭찬 응답 방식이다. 이외에도 한국의 사례에서는 ‘고마워’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의하기 유형은 중국에서는 ‘可以吧’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의미는 청자의 칭찬을 수용하지만 약간 약화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 반면 한국 사례에서는 ‘그렇죠’라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중국과는 달리 칭찬에 대한 약화 의미는 없다. 다음으로 겸손하기 유형은 중국 사례 중 칭찬에 대해 이중 부정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겸손 수용으로 볼 수 있지만 개인 이해에 따라 부정 유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중립 유형에서는 설명하기 유형의 사례가 나타났다. 화자의 칭찬을 전부 수용하는 대신 설명을 통해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다.

두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가상부부나 가상 연인 관계라서 연구 대상의 제한으로 인해 친밀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

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난 시기별로 칭찬 화행 및 응답 사례를 정리하였다. 두 사람이 방송을 통해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는 남자의 칭찬에 여자는 화제 전환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방송 중반에는 남자의 칭찬에 여자는 전면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대신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화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종영 시점에서는 여자가 두 사람이 최초로 만났을 때보다 친밀도가 상승하여 칭찬 화행도 간단해졌고 응답도 간단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친밀도에 따라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과 칭찬을 받은 후의 응답을 더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최신 리얼리티 쇼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사례를 채집하여 분석하였기에 언어 자료에 실제성과 현재성이 있다. 또한 다수의 다양한 연령대의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고 있다. 반면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 참고문헌】

- 김현정(1996), 영한 화행 대조 분석: 칭찬 및 칭찬 반응을 중심으로.
- 김형민(2003),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 수행 및 응대 상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55-290.
- 백경숙(1998),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칭찬 화행에 대한 응답전략 고찰,
한국사회언어학회. 229-264.
- 박경옥(2005), 담화분석을 통한 칭찬화행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애양(2009), 한·중 칭찬 화행 대조 연구-칭찬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원(2005), 한국어 교육을 위한 칭찬 화행 연구: 칭찬 반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미(2009), 칭찬에 대한응답 화행의 실현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회지,
42, 143-146.
- 정다운(2002),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행 대조 분석: 칭찬과 그 반응을 중심
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표(1996),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에 나타난 공손법 분석.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 21(1).
- 이하나(2005), 영어관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칭찬 응답 화행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영문 참고문헌】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Cole & J. Morgan(eds.) Syntax & Semanitic, Vol.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Hall, E.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double day
- Herbert, R. (1991), The sociology of compliment work in polish and multilingua 10(4):381
- Holmes, J. (1988), Playing compliments : A sex-prefereential positive strategy, Journal of Pragmatics 12.
- Leech, G. N. (1983) Principles of Pramatics[m]. London: Longman.
- Holmes.J.(1988) 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in New Zealand English[J] Anthropological linguistics, Vol. 28, No.4, 485-508.
- Manes, J. & Wolfson, N. (1981). The compliment formula. In F. Coulmas(Ed.), Conversational Routine: Explorations in Standardized Communication Situations and Prepatterned Speech (pp. 115-132).Mouton: The Hague.
- Olshtain, E., Cohen, A., & Zeller Mayer, M. (1991). The Development of Elaborative Skills: Teaching Basic Writing Students to Make the Commitment to Audience and Topic. Linguistic and Education, 3(4),359-383.
- Pomerantz.A.(1978), Compliment responses: Notes on the cooperation of multiple constraints. InSchenkein. [J]. (ed.) Studies in the organization of conversational interaction.79-112. New York; Academic Press

Ye, L. (1995), Complimenting in mandarin Chinese. In Kasper, G(ed.)
Pragmatics of Chinese As Native and Target Language
(207-302). University of Hawaii, USA

【중문 참고문헌】

- 賈玉新(1997), 跨文化交際學. [M]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7, 367-373.
- 李悅娥,,馮江鴻(2000), 析普通話話語中的贊揚及其應答. 外語與外語教學, 2000
年第9期.
- 權立宏(2004), 漢語中男女在稱贊語和稱贊語回應使用上的差異分析. 現代外語,
27(1), 62-69.
- 張亭亭(2007), 漢語言語交際中稱贊語的性別差異研究. 北京語言大學.
- 楊迪(2007), 英漢稱贊語及其應答的對比語用研究. 黑龍江大學.
- 吳惠貞(2009), 漢韓稱贊語及其應答語對比研究. 華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曹慶慧(2011), 當代漢語稱贊應答策略的性別差異. 中華女子學院學報, 23(5),
45-48.
- 劉梅(2011), 漢語稱贊言語行為研究. 曲阜師範大學.
- 郭愛先(1996), 美國稱贊語的話題與對象[j]. 鎮江師專學報 (社科版) 1996
(3) 56-58.
- 許立生(2006), 語言研究的跨文化視野, [M]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7, 367-373.
- 高志懷,李娟.(2006),稱贊語的語用研究[J].鎮江師專學報 (社科版) 2006 (1)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동일한 포맷으로 만들어진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우리 결혼 했어요>와 <我們相愛吧>의 최근 2년 동안의 방송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한 칭찬 화행과 칭찬 응답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중 문화 교류와 현실에서의 한·중 국제결혼 가정의 언어 교육 측면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칭찬 화행과 칭찬 응답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칭찬 화행과 칭찬 응답을 수집하여 한·중 칭찬 화행과 칭찬 응답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한·중 문화 교류와 한·중 국제결혼에서 흔히 나타나는 의사소통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한·중 학자들의 칭찬 화행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칭찬 화행에 관련 이론적 배경을 다루었다. 먼저 칭찬 화행의 개념 및 칭찬 응답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칭찬 화행의 기능 및 특성을 알아보았다.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 이외에도 기타 학자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칭찬 화행의 및 칭찬 응답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중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우리 결혼 했어요> 21회 분량과 <我們相愛吧> 26회 분량에 대해 소개하고 이번 연구용 자료 수집과 칭찬 화행 사례 분포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대상 및 주제 선정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논술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한·중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칭찬

화행 사례를 한·중 칭찬 화행의 유형, 칭찬 화행 문법 구조, 칭찬 화행에서 사용하는 어휘, 칭찬 화행 화제 및 칭찬 대상, 칭찬 화행의 기능 및 칭찬 응답 유형의 여섯 가지 세부 항목 별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칭찬 화행 및 칭찬 응답에 대한 대조 연구를 실시하였다.

5장에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중 칭찬 화행의 차이에 대해 원인을 분석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중 칭찬 화행 중 직접적 칭찬 모두 6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칭찬 화행 문법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어 칭찬 화행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의 수가 많지 않은 반면 중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2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한·중 칭찬 화행 어휘 중 형용사가 양국 모두 90% 비율을 차지한다. 이번 연구 중 동사를 사용하여 칭찬하는 사례가 중국에서는 나타났으나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칭찬 화행의 주제 및 대상의 경우 중국은 소유물 주제를 많이 언급한 반면에 한국은 기능 및 능력에 칭찬 주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찬사 기능은 한국과 중국이 유사하다. 이에 반해 응원과 격려 기능, 겸손 표현 기능은 중국에서 더 많이 수행하는 한편 만족과 감사 표시 기능은 한국에서 더 많이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최신 리얼리티 쇼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사례를 채집하여 분석하였기에 언어 자료에 실제성과 현재성이 있다. 또한 다수의 다양한 연령대의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고 있다. 반면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